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64호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산업]
태양광사업
'진두지휘'
김동관 리더십
05

코스피 1932.97 (+5.15)
코스닥 639.78 (+9.41)
금리(국고채 3년) 1.73 (-0.02)
환율(원·달러) 1183.50 (-2.00)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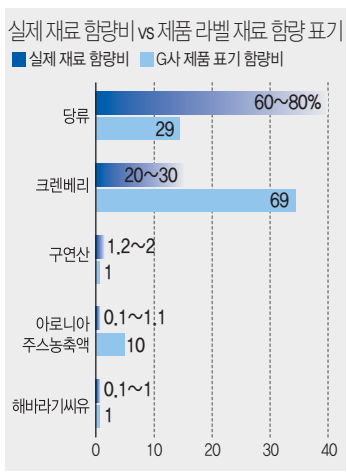
#병원에서 당수치가 높다는 지적을 받은 주부 서모(54)씨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표시 성분을 확인한다. 그는 최근 홈쇼핑에서 견과류 제품을 구입해 건조 크렌베리와 블루베리의 함량 표시를 확인했다. 크렌베리가 69%, 설탕과 아로니아주스 농축액이 10% 포함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탕 함량이 낮아 안심하고 섭취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제품의 실제 당(SUGAR) 함량이 80%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품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

말린 크렌베리 제2의 백수오?

일부 건조·발효·농축·합성 식음료의 성분 표시가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과 달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이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첨가물에 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커피믹스·햄·베이컨류 ▲과일 자체의 당에 농축된 첨가물이 더해져 제조 후 당이 높아지는 과일주스 ▲제조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첨가물이 발생하는 발효식초·혼합장·치즈·멸치액젓 등 소스류는 제조 시 투입하는 원재료와 소비자가 섭취하는 재료 성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G사는 미국 크렌베리 주스 업체 오션스프레이사로부터 크렌베리 착즙 후의 부산물을 수입해 재가공한다. G사는 크렌베리 주스



식약처 '제조시점' 성분표시
건조 과정서 당함량 높아져
섭취시점땐 '허위표시'한 셈

커피믹스·햄 등도 함량 달라
애매한 기준 탓 소비자 혼란

제조 후 남은 크렌베리 부산물에 당과 아로니아주스농축액, 구연산 등을 첨가해 재건조한 제품을 납품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섭취하는 상태의 건조 크렌베리 성분과 G사의 표기 성분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크렌베리 부산물을 재가공하는 과정은 정제수, 설탕, 색을 내기 위한 아로니아주스농축액 등이 투입된다. 이후 정제수를 증발시켜 건조 크렌베리가 완성된다.

본지가 미국 오션스프레이사에 성분 확인을 요구한 결과 건조 전에는 투입하는 정제수와 크렌베리 과즙으로 인해 당 함유량은 전체의 29%, 크렌베리 함유량은 69%였다. 하지만 완전히 건조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의 건조 크렌베리의 당 성분은 60~80%였다. 건조과정에 과즙은 증발돼 크렌베리 함유량은 20~30%에 불과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라벨에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의 재료 성분이 표기된 것이 아닌 건조되기 전의 성분이 표기돼 소비자는 크렌베리 69%, 당 29%로 이뤄진 제품을 섭취한다. 결국 소비자가 섭취하는 건조 제품은 80%가 당으로 이뤄진 식품이 되는 셈이다.

G사의 관계자는 "성분 표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식약처에 문의했다. 품목제조신고 시 원칙은 투입량을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완제품에는 정제수를 포함한 재료성분이 표시돼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 사이버상담 결과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정제수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전대훈 식약처 연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분표시는 무조건 섭취 상태의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제품은 허위표기"라고 식약처의 인터넷 답변과 배치되는 답을 내놨다.

이렇게 실제 섭취 성분과 제조 성분이 다른 제품은 건조 크렌베리 뿐만이 아니다. 커피믹스나 햄, 베이컨 등의 나트륨 표기나 과일주스 등에 당을 추가할 때도 섭취시와 제조시 상이한 성분 표기가 비일비재하다.

원재료 위주의 표기 방법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만일 본인이 먹는 건조 크렌베리 제품이 80%가 당이라면 구입을 한 번 더 고려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투입된 재료 표시보다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의 성분 표시가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의 재료 성분표시를 자신이 섭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조 크렌베리는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국내 홈쇼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 중 하나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선거구 안 정해졌는데… 등록 첫날 분주한 예비후보 사무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무실(왼쪽 사진)과 같은날 강남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전현희 예비후보자(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인프라, 고강도 구조조정… K2전차 '어쩌나'

올 희망퇴직 4회… 기술직 이탈
생산차질·품질이상 등 문제 우려

두산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직 인원이 대거 포함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로템이 군에 납품하는 K2전차에 들어갈 엔진 개발·생산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맡고 있어 기술직 인원의 대거 이탈로 생산 차질과 품질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3000여명의 사무직·기술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1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지난 2월과 9월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지난 달에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생산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세 차례의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난 인원은 기술직 450여명을 포함해 600여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두산인프라코어의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엔진 기술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향후 K2전차에 탑재될 엔진의 품질도 보장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K2전차는 1500마력의 독일산 대신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다.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핵심 부품으로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중공업이 개발을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엔진 전문가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여파는 K2전차 생산 관련 업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술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엔진의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군에 납품할 K2전차 공급을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현대로템은 물론 모든 업체들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구조조정과 K2전차 엔진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K2전차 엔진 양산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K2전차 엔진 기술개발) 핵심 인력의 이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시제품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직장 건보료 또 오른다… 내년부터 월 10만원 육박

〈10월 기준 9만5387원〉

복지부 "역대 최저 인상폭"
장기입원때 입원비 부담↑

내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하는 등 흑자행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7년 연속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은 역대 최저다. 그러나 내년부터 입원료 부담이 오르는 등 병원비나 약값에 대한 건보 지원은 줄고 본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세 번째)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 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또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연미란 기자 actor@

한줄 News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은 은퇴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이날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후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역고가 폐쇄**로 고가 인근 우회로의 정체 현상이 지속됐으나 혼잡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역고가 폐쇄로 한강대로와 퇴계로 등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체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경쟁이 치열해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풍을 일으키며 '티볼리'로 쌍용차가 가장 화려한 한해를 보냈다면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신뢰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 **네이버**가 가상현실을 접목한 360VR 서비스를 동영상에 도입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브이(V)' 앱에 액션캠과 드론을 활용하는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금융·부동산

▲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2.0' 시대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비대면 거래 채널의 보안문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올해 **증시**에선 식음료, 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부문 상장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조선, 기계, 건설 등 제조업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시총 상위종목 간 순위 경쟁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지속적인 확대 우려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 최대 화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발표였다. 경기도 **안성**은 세종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면서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씩 붙어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유통·라이프

▲ 일부 건조·발효·농축·합성 **식음료의 성분 표시**가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과 상이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크렌베리, 과일주스 등은 제조 과정의 원재료 성분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완제품의 성분함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타여왕' **박성현**(22·넵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박성현은 내년 시즌 2016시즌 LPGA 투어 대회에서 7차례 가량 출전할 계획이다.

억울한 가산세 막는다

서울시, 20년 만에 세무조사 개편
기업 세무조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선정한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없앤다.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세미나 중계 | 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취약계층, 상환부담 줄도록 정책바꿔야"

이재연 금융硏 연구위원
"물량위주 자금공급 지양, 복지지원도 더욱 강화를"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 강연을 듣고 있다. /김문호 기자

"금융소외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충북대 교수)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덕분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규모가 이미 28조원을 넘는 등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정책성 서민금융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금융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핀테크 등 금융 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특히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피해가 발생해도 복잡한 약관 등으로 책임 규명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내년도 중점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도 제시됐다.

이형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서민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등을 어떻게 소상공인 분야에 접목할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서민금융정책이 물량 위주의 자금 공급은 지양하고 맞춤형 서민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환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에 대해선 복지 지원을 강화하거나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정책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쪽에 맞춰져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서민금융 정책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서민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할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저출산 극복위해 기업 문화 바꾼다"

경제 5단체, 실천 선언문 발표
근로문화개선·어린이집확대 등

경제계가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박병원 경총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무협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계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계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기업·개인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 확대, 주택보급, 보육시설 확충 등을 담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추가적으로 사교육비 완화나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혼과 출산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며 ▲출산, 육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발맞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남성들도 자유롭게 유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모범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민곤합동협의 채널에 적극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언문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개혁 분수령… 총파업·입법논의 착수 맞물려

노동계 "개혁 저지에 사활"
재계 "파업땐 무임금" 엄포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동력을 잃어가던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여당과 야당' 간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 중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6일에는 이견이 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입법 '일괄·분리·폐지' 기로

여야가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핵심은 5개 입법안의 처리 형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이견이 큰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정규직 과보호에 불과하다"며 분리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는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양산'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입법이 시한부라는 점이다. 임시국회가 내달 8일까지지만 정치권이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연말이 지나면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이 사실상 보름에 불과한 것이다.

◆동력 거세진 노동계 vs 경제계 "좌시 않을 것"

그 사이 노동계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까지 노동개혁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이후 첫 집회인데다 정치권의 노동입법 논의 착수가 맞물린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지난 5일 평화집회를 놓고 '공감대 형성'과 '길들여진 시위'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성격이 다소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경찰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성향 단체의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들의 집회가 시작도 전에 '불법시위'로 낙인찍힌 것이다. 경제계는 노동계 총파업 방침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각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후폭풍

'3040 집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 조치
주택시장 위축 장기화 우려
매매·분양 동반 하락 불보듯

은행대출 심사강화로 주택시장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아파트 매매·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생계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시장 역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집단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일시상환이 아닌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9월까지 1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은 12% 규모인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나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분할상환을 해야 돼 주택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생활자금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으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자금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은 증빙이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생계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분할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40대 수요자 대출 어려워질 듯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여서 기존 재고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당수 주택 구입자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 왔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를 주도해 온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반포동 R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보합 또는 내림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테고 집단 대출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예전처럼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집단 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달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의 거치식 대출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대출규제를 부동산규제로 인식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녹번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잔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요자 감소로 재고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필·박상길 기자 roman@metroseoul.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회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CJ, 결국 '성장 빨간불'

CJ그룹의 내년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CJ그룹은 15일 열린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비비고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식세계화와 CJE&M의 한류스타 공연 등 문화 한류를 주도해왔던 CJ는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또 다시 구심점을 잃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의 글로벌화는 또 다시 재상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재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회장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투병중인 이 회장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CJ그룹의 투자는 위축됐고 대형 인수·합병(M&A)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 회장 구속 전인 2012년 2조9000억원을 투자했던 CJ그룹은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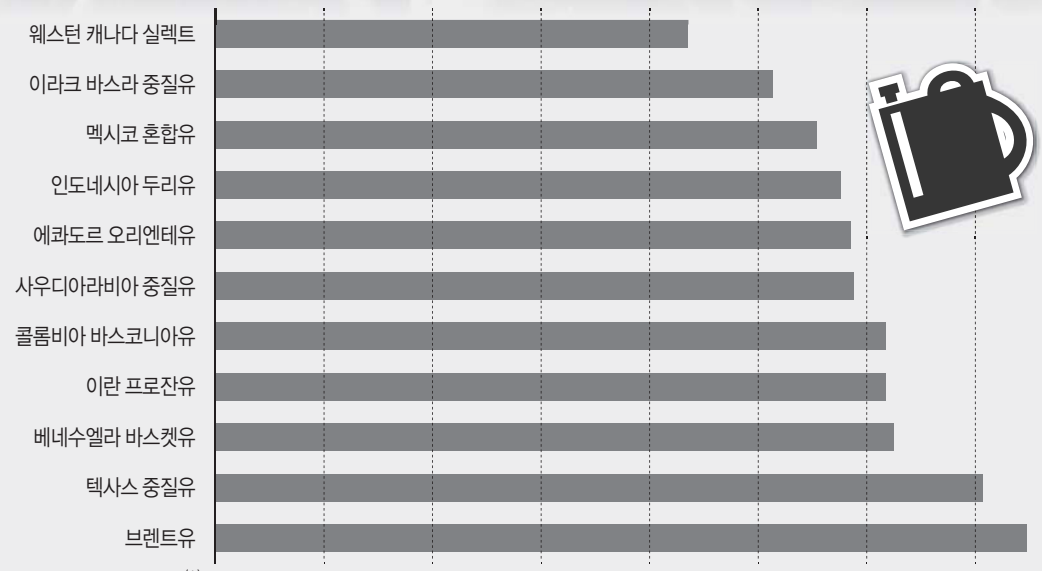
기업 성장을 위한 M&A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싱가포르 물류업체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했다. CJ오쇼핑도 티켓몬스터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불참했다. 인도 극장기업 2곳을 인수하려던 CJ CGV도 인수에 실패했다.

CJ헬로비전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4년전만해도 강남방송과 울산방송 등 2개 SO를 4000억원에 매각한 사례를 볼 때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1조원 매각은 덤핑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

CJ그룹은 앞으로 코웨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수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당장의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美, 석유금수 해제 수순… '저유가 치킨전쟁' 본격화



지난 2012년 2월 미국 캔자스주 메디슨라지의 유전지대에서 근로자들이 유정 드릴작업을 하는 모습.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경우 저유가 치킨게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美석유생산기업들, 해외 판매로 살길 찾기
셰일오일 기업들도 내수 판로 확보 총력전
OPEC "싸게 더 싸게"에 유가 하락 불보듯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과 미국 간 저유가 치킨게임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석유생산자들은 수출이 막힌 탓에 국제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했다. 여기에 미국의 셰일오일업자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 치킨게임으로 유가가 끝없이 하락하자 더욱 고통을 받았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로 이들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셰일오일이 채울 전망이다. OPEC의 저유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셰일오일업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16일 예산안과 함께 석유수출금지해제법 처리될 듯

14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는 오는 22일 40주년을 맞기 전에 해제될 것이 유력하다. CNN머니는 미국의 셰일오일 붐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석유수출을 금지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석유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실시했던 석유수출금지 조치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미국 상원의회의 여야 지도자들은 석유수출금지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갔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은 석유수출금지법 폐기 문제를 예산지출법안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저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석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안은 예산안 심사 마감시한인 16일 처리될 공산이 크다. 석유수출금지법 해제에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폐기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최종 통과해 올라오면 거부권까지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유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유수출 재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 해외진출, 셰일오일 미국시장 확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역시 석유생산자들이다. CNN머니는 "미국의 석유는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 브렌트유'에 대해 '디스카운트'(가격할인)를 받아왔다"며 "해외의 정유업자들에게 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유가 치킨게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미국 석유생산자들은 더욱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팔아야 했다.

다음으로 셰일오일업자 역시 이익을 보게 된다. 미국내 셰일오일이 중동산 석유를 대체해가고 있지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강공을 펴면서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디스카운트된 미국산 석유와의 가격경쟁에서는 더욱 불리한 입장이다. 석유수출금지법이 해제되면 미국산 석유의 디스카운트로 인한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더욱 유리한 가격을 찾아 미국산 석유가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셰일오일업자들은 국내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정유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유가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를 사들이고 팔 때는 국제가격에 맞추어 팔아 이득을 봤다. 미국의 에너지당국은 석유수출금지가 해제돼 석유 구입단가가 높아질 경우 2025년까지 미국 정유업자들의 손실은 연간 220억 달러(약 2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는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유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유가 치킨게임 더욱 치열… 배럴당 20 달러 재촉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의 정유업자들만이 아니다. 미국 셰일오일과 가격전쟁을 벌이고 있는 OPEC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셰일오일에 더해서 미국산 석유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산 석유가 아시아로 수출된다면 OPEC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치열한 경쟁은 곧 유가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럴당 20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석유인 '웨스턴 캐나다 실렉트유'는 배럴 당 20 달러 초반대이고, '이라크 바스라 중질유'는 배럴당 25 달러를 간신히 넘겼다. '멕시코 혼합유', '인도네시아 두리유', '에콰도르 오리엔테유', '사우디아라비아 중질유' 등도 배럴 당 30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 위안화 절하에… 미·중 '2차 환율전쟁' 어디까지?

달러 고정 풀려 내년까지 위안화 치솟아
'슈퍼 달러' 시대 환율 정하려는 의도 있어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G2 간 새로운 환율전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년 '슈퍼 달러' 시대가 열리면 중국이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내년말 달러당 최대 7.65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들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환율전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내년 2분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7 위안, 3분기 7.47 위안, 4분기 7.65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달러당 7.65 위안이라면 전날의 6.4591 위안과 비교했을 때 위안화 가치가 18.4% 더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일본 다이와은행은 내년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5 위안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르웨이 DNB은행은 내년 4분기 달러당 7.03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64개 해외투자은행(IB) 전체의 평균 전망치는 달러당 6.61 위안이다. 전날 국제금융센터가 14개 해외IB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에서는 3개월후 달러당 6.5242 위안, 6개월후 6.6125 위안, 9개월후 6.6733 위안, 12개월후 6.7143 위안이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이 회의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슈퍼 달러'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중국이 기존의 달러 고정 환율제를 유지한다면 위안화는 달러에 이끌려 함께 강세를 띠게 된다. 수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피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 도입을 시사한 '통화바스켓 연동제'는 이에 대한 해법이다. '슈퍼 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자국 수출에 유리하게 위안화의 환율을 정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가 무역비중을 고려해 13개 통화환율로 구성한 'CEFTS 환율지수'는 작년말 대비 2.9% 절상된 반면, 같은 기간 달러화에 대해서는 3.0% 절하됐다. 'CEFTS 환율지수'가 바로 중국이 적용하겠다는 통화바스켓이다. 중국이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절상된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하겠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환율전쟁을 일으킨다고 비난하기 곤란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달러와 위안화 간 환율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환율전쟁이 단지 미중 사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긴축에 들어갈 경우 환율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지만 중국과 함께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2년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매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CB는 지난 3일 예금금리를 -0.20%에서 -0.03%로 내리고, 국채매입 프로그램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장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양적완화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수단이 바로 양적완화이다. 일본은 2년간 100조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풀고 엔화 약세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도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양적완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모두 포기했지만… 태양광사업 '진두지휘'로 리더십 입증

재계 3·4세 경영시대 개막 〈1〉 한화그룹 / 김동관 전무

재계 연말 인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재계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창업주 3·4세들의 시대 개막'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 전반에 오너가 3·4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기업의 신규 사업이나 전략기획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스타일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3·4세들을 살펴보고 이들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변화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신재생에너지' 뚝심 발휘
한화큐셀 흑자전환 성공
입사 5년 만에 고속승진

中 포럼서 시장성장 확신
회사 성장에 승계입지 탄탄

한화그룹 태양광 계열사인 한화큐셀의 영업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관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 전무(사진)는 지난 2010년 1월 한화에 입사한 후 2012년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13년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 지난해 9월 한화솔라원 영업실장, 올해 1월 한화큐셀 상무 자리에 오른 뒤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다.

김 전무는 지난해 말 한화큐셀 상무로 선임된 만큼, 사실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김 전무가 승진하고 이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맡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실적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운오리에서 백조'된 한화큐셀

한화큐셀은 그룹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붐을 타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태양광 사업에 앞 다퉈 뛰어들었던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사업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화는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태양광 사업을 전담시키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한화큐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에서 올 2·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4분기에는 매출 4억2720만 달러, 순이익 5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태양광 분야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개선을 일궈낸 김 전무의 사업능력과 승부사 기질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물론 김 전무의 부친인 김승연 회장의 한화큐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재계는 김동관 실장을 두고 선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성격과 추진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평가한다. 한화그룹 창업주인 고 김종희 회장이 1981년 타계한 후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경영 전권을 잡았던 김승연 회장은 한양화학을 전격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김 실장 역시 선친의 부재 속에 태양광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임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또 지난 2월 태양광 계열사를 한화큐셀로 통합해 셀 생산규모 기준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를 만들었다. 이후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생산효율성을 개선시켰다.

◆"태양광 성장한다" 소신, 美·中이 입증

특히 김 전무가 주목받은 이유는 태양광 사업의 밝은 장래성을 내다보는 소신 때문이다. 지난 9월 중국 다롄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아시아의 에너지 옵션 포럼'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김 전무는 중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에도 태양광 산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김 전무는 당시 포럼 토론에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진화에 따른 발전 원가 하락으로 미국과 인도에서는 석탄과 다른 에너지원 가격과 비슷해진 사례를 설명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자신했다.

김 전무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같은 전망은 최근 열렸던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에너지 '탈(脫)석유화'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태양광은 에너지 생산 가격, 친환경성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의 성장세와 함께 김 상무의 그룹 내 입지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김 전무는 이번 승진으로 태양광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하고 승계구도도 공고히 하게 됐다"며 "한화큐셀의 실적호조가 한화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 상무를 중심으로 한 후계구도는 앞으로도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최태원 SK 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과 이문석 SK사회공헌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세미나에 참석한 협력회사 대표들과 두 손을 맞잡고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일심동체로 경제위기 돌파하자"

SK 2015 동반성장 CEO세미나
계열사·협력사 대표 97명 참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의 각 관계사 협력회사 대표들을 만나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대기업과 협력사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이 위기를 경제활성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15일 서울 광장동 SK아카디아에서 열린 '2015 동반성장 CEO 세미나'에 참석해 SK그룹과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SK 동반성장 CEO 세미나는 그룹 차원에서 협력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과 리더십 등 경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SK 수펙스추구협의회의 동반성장 주관 위원회인 사회공헌위원회 이문석 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조기행 SK건설 사장 등 8명의 관계사 CEO와 협력회사 CEO 89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하락과 새로운 경쟁체제 등으로 우리 경제와 주요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동반성장 문화에 대해 최 회장은 "SK가 추구하는 행복동반자는 달성의 목표가 아닌 영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며 "SK의 동반성장이 SK뿐 아니라 협력회사에서도 경영철학이자 기업문화로 온전히 자리잡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점유율 신기록

올 3분기 합계 73.5%… 5분기 연속 갱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인 D램 시장에서 5분기 연속 점유율 합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15일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15년 3·4분기 D램 시장 점유율 순위는 삼성전자 45.9%, SK하이닉스 27.6%, 마이크론(미국) 19.8%, 난야(대만) 2.8%, 윈본드(대만) 1.3% 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합계는 73.5%를 기록, 올해 2·4분기(72.5%)에 이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2014년 3·4분기 68.3%로 종전 최고치인 2012년 4·4분기의 67.4%를 경신한 이후 5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이다.

이번 3·4분기 삼성전자의 점유율 45.9%는 단일기업 역대 최고치이다. SK하이닉스도 2·4분기에 27.3%보다 점유율을 0.3% 포인트 높이면서 3위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7.8%포인트 차이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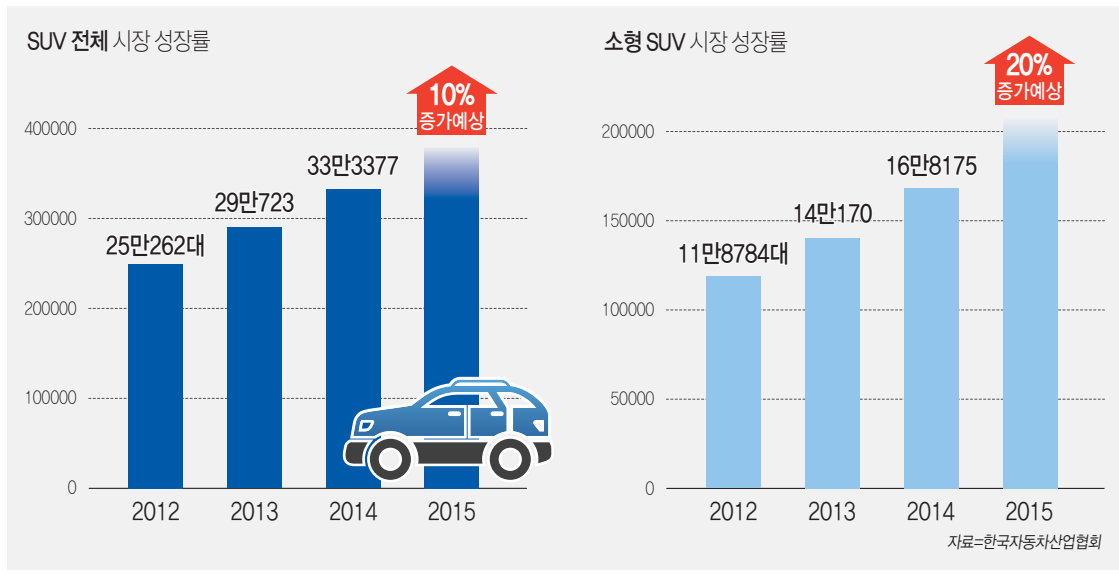
D램 시장 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론은 2013년 4·4분기 28.2%로 정점을 찍은 이후 7분기 연속 점유율이 하락한 끝에 3·4분기에는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정은미 기자

소형 SUV·수입차 '대세 입증'… 내년엔 '친환경차' 대기중

2015년 산업 결산 ② 국내·외 車업계 경쟁 치열

[글 싣는 순서]

① 국내외 위기 속 지각변동 속출
③ 전자업계, 中 저가 공세 기술로 승부
④ 바닥찍은 조선업계 해법찾기 스타트
⑤ '빙하기' 철강업계 내년엔 꽃 피우나
⑥ 통신업계 중저가폰·사물인터넷 승부
⑦ PC서 모바일로…게임시장 중심 이동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형SUV, QM3 시작으로 매년 20% 넘는 성장률
수입차, 소형 출시·가격 인하로 20만대 판매 돌파
2016년엔 국내 하이브리드車 성장 더 빨라질 듯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풍을 일으키며 쌍용차는 '티볼리'로 가장 핫한 한해를 보냈다. 반면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SUV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형 SUV, 돌풍의 중심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SUV의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SUV 판매량은 2012년 25만262대, 2013년 29만723대, 2014년 33만3377대로 폭증했다. 올해 역시 10%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트랙스, QM3, 티볼리, 스포티지, 투싼 등이 모두 포함된 소형 SUV는 2012년 11만8784대, 2013년 14만170대, 2014년 16만8175대로 해마다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 SUV의 인기는 르노삼성의 QM3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르노삼성 QM3는 사전계약 개시 7분 만에 초도물량 1000대가 모두 팔리는 기록을 세울 만큼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쌍용차 티볼리 가솔린 모델은 지난 1월 출시돼 매월 3000대 가량 팔리며 상반기 총 1만8524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디젤모델이 가세하면서 7월 4011대, 8월 3488대, 9월 3625대, 10월 5237대, 11월 4924대 등 여전히 증가추세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3만9809대를 팔았다. 깔끔한 디자인과 부담 없는 가격 등이 장점인 티볼리는 현재 소형 SUV 판매 1위이다.

중형 SUV 시장도 주목받았다. 지난 6월 디자인과 상품성을 강화해 새로 출시된 싼타페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9073대가 판매됐다. 이후 8000여대 이상 판매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투싼은 매달 4000여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의 싼타페는 8879대, 투싼 5520대, 맥스크루즈 1500대 등 전체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0% 증가한 1만5913대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는 7128대 판매됐다.

이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UV 시장 경쟁에 합류한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7%인데 내년 말까지 2배 가까이 늘릴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내년 1월 중형 SUV인 더 뉴 GLC와 대형 SUV 더 뉴 GLE를 출시한다. 또 하반기에는 7인승 플래그십 SUV GLS와 럭셔리 SUV 쿠페인 GLE쿠페 등 2종을 추가한다. 현재 판매 중인 G클래스와 GLA를 더하면 SUV 차급에서 총 6개 모델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수입차 사상 최초 20만대 돌파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업체들도 올해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엔트리카로 앞다퉈 소형차를 선보였다. BMW는 소형 해치백 뉴 1시리즈를, 아우디는 A1을, 폴크스바겐은 신형 폴로를 출시했다. 수입차 시장은 20~30대 젊은층의 고객 선호가 늘어났고 가격이 예전과 달리 크게 인하되면서 국산차와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덕분에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사상 최초로 20만대를 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1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월보다 32.0% 증가한 2만2991대로 집계됐다. 11월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1만6959대보다 35.6% 증가했다. 2015년 11월 현재 수입차의 누적대수는 21만9534대다. 수입차 사상 연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17만9239대보다 22.5% 증가한 실적이다.

◆2016년 친환경차 급부상

내년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논란과 맞물리면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올해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기준 총 1만9789대가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인 1만6006대와 비교해 23.6%가 더 늘었다. 특히 이번 폴크스바겐 디젤 사태 후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차를 보유한 도요타는 올해 10월까지 총 6700여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했다. 5800여대를 판매한 지난해보다 23% 성장폭을 보였다.

국내 업체는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22종류의 친환경 차를 개발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선점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후발주자이지만 급성장하는 현대차의 기세는 무섭다. 20014년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0% 성장세를 기록, 220만여대를 팔았다.

현대차는 대표 중형세단인 쏘나타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2011년부터 내놓기 시작했다. 이중 2015년식은 27개월의 연구개발 기간과 총 18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5년형의 최고출력은 156마력, 전륜구동이며 17.7~18.2 ㎞/ℓ 의 연비를 갖추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대차는 2016년초 첫 하이브리드차 전용 모델 AE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BMW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BMW 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X5 x드라이브 40e'와 3시리즈의 '330e', 하반기 7시리즈의 '740e'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올해 스포츠카 i8로 국내에 첫 선을 보인 PHEV의 라인업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기존에는 i3나 i8과 같이 'i'라는 서브 브랜드로 친환경차를 선보였다면 내년부터는 'e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한 모델 라인업을 넓혀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안전·편의·스타일, 맞춤형 기아차 '더 뉴 K3 디젤'

연비·성능·편의사항 강화에도
가격인상 최소화로 고객만족

기아자동차 더 뉴 K3 디젤

기아자동차 K3 디젤 모델이 경제성과 상품성을 겸비한 '더 뉴 K3 디젤'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아차는 7단 DCT(Dual Clutch Transmission) 적용을 통해 동급 최고수준의 연비를 달성하고 주행성능을 한층 향상시킨 '더 뉴 K3 디젤'을 15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 뉴 K3 디젤'은 기존 1.6 디젤 엔진에 7단 DCT를 새롭게 탑재해 기존(16.2㎞/ℓ) 대비 18% 향상된 19.1㎞/ℓ 의 복합연비를 달성해 경제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연비 기준)

아울러 최고출력은 기존 대비 6% 향상된 136마력(ps), 최대토크는 7% 향상된 30.6㎏·m로 수준 높은 동력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민첩한 변속반응 속도로 역동적인 주행감을 구현했다. (기존 모델 최고출력 128마력(ps), 최대토크 28.5㎏·m)

이와 함께 '더 뉴 K3 디젤 모델'은 지난달 출시한 '더 뉴 K3 가솔린' 모델에서 전체 계약의 40% 비중을 차지하며 좋은 고객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트렌디 A.C.E' 트림을 동일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안전(트렌디 A) ▲편의(트렌디 C) ▲스타일(트렌디 E) 등의 콘셉트에 맞춰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트렌디 A.C.E' 트림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도어손잡이 조명 등 고객 선호사양을 공통으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추가로 '트렌디 A' 트림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트렌디 C' 트림에는 앞좌석 통풍시,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뒷좌석 에어벤트가 '트렌디 E' 트림에는 HID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보조제동등이 기본 적용된다.

'더 뉴 K3 디젤'은 기존 모델 대비 연비와 성능, 각종 편의사양을 강화하면서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고객 만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력 트림인 '트렌디'는 연비 및 주행성능 향상 외에도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D컷 스티어링 휠 ▲패들 쉬프트 등 다양한 고급 사양을 신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3만원으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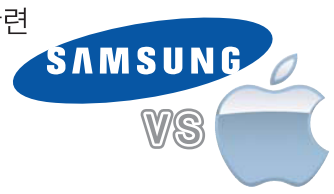
'더 뉴 K3 디젤 모델'의 판매가격은 ▲디럭스 1772만원 ▲트렌디 1986만원 ▲트렌디 A.C.E 2074만원 ▲프레스티지 216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2273만원 ▲노블레스 2336만원이다. (개소세 3.5% 적용 기준)

기아차 관계자는 "'더 뉴 K3 디젤'은 동급 최고 수준의 19.1㎞/ℓ 연비 제공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는 준중형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美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디자인 특허 범위·배상액 관련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는 드물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20년 전인 1890년대에 카펫에 관한 소송이었다. 이에 앞서 1870년대에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이 심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명칭이 '애플 대 삼성전자 등'인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상고 허가 신청 대상이 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일단 이달 14일까지 이 돈을 지급키로 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730억 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일터안전을 위한 첫 단추,
작업 전 안전점검 으로 채우세요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2천명, 재해자 9만여 명

일터에서 매일 5명이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는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교육은 실시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 공정에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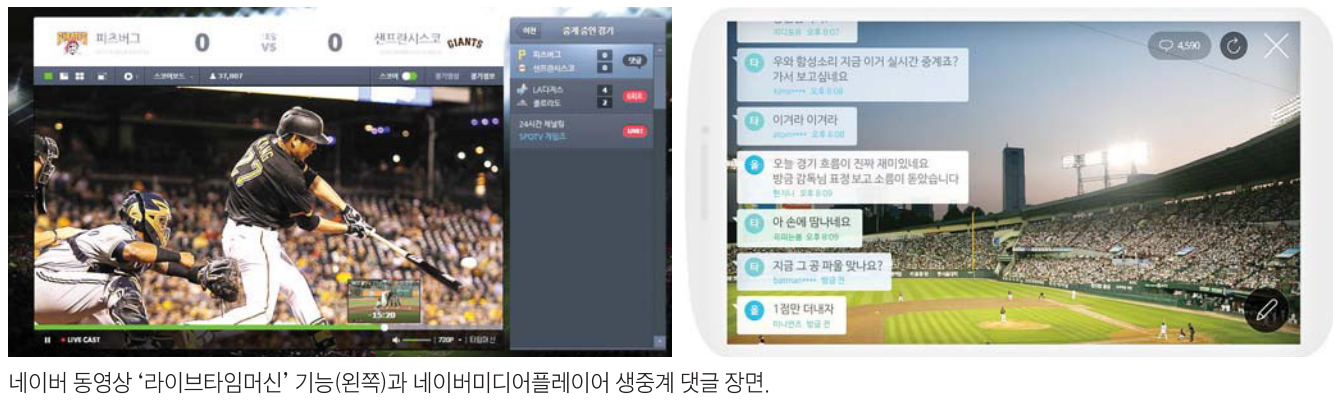
작업 전 안전점검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물렀거라” 네이버, 360VR 등 동영상 대폭 강화

〈가상현실〉

자체 라이브앱 ‘V앱’서
액션·드론캠 통해 찍은
멀티라이브도 지원키로



네이버 동영상 ‘라이브타임머신’ 기능(왼쪽)과 네이버미디어플레이어 생중계 댓글 장면.

네이버가 가상현실(VR)을 접목한 360 VR 서비스를 동영상에 도입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브이(V)’ 앱에 액션캠과 드론을 활용하는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향후 동영상 서비스에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사용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네이버TV캐스트의 연간 재생 수는 지난해 13억3000만건에서 올해 48억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60% 증가한 수치다. 또 네이버TV캐스트의 평균 체류시간도 모바일 웹을 기준으로 2014년 9.4분에서 2015년 19.1분으로 103% 성장했다.

네이버 동영상의 생중계라이브 재생수는 VOD시청 재생수를 웃돈다. 올해 네이버에서 생중계를 감상한 이용자들은 누적 2억7800만명, 누적 시청시간은 4억4500만 시간에 달한다.

네이버 생중계 횟수는 9215건으로 작년 대비 3000건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 생중계 재생수를 VOD 재생수로 환산하면 133억5000만건에 달한다. 이는 VOD 누적 재생수인 123억8100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VOD 회당 2분 시청 기준).

◆액션캠·드론 카메라·360도 가상현실 서비스 도입

네이버는 향후 동영상 서비스에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앱인 ‘브이(V)앱’에 액션캠, 드론 등 고성능 카메라에서도 멀티 라이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감상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12월 중에는 360도 가상현실 서비스인 360 VR서비스가 제공돼,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360도로 회전하며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장면 추출 기술도 적용된다. 동영상 장면 탐색이 시간 단위뿐 아니라 장소, 인물, 객체 등 스토리 변화 요소에 따라서 가능해질 계획이다.

동영상 검색 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오디오나 자막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영상 창작자들의 콘텐츠 유출을 대비한 보안도 강력해진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캡처 방지뿐 아니라 영상에 ID 기반 워터마크 기능을 제공, 불법 콘텐츠 유출을 원천차단하고,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단위로 영상 되돌려보는 ‘라이브 타임머신’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생생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도 도입했다. 네이버 PC에서 스포츠 생중계 경기를 감상하면, 생중계 도중에도 영상을 초단위로 되돌려볼 수 있는 ‘라이브 타임머신’ 기능을 제공 중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선수의 득점 장면 등을 놓치더라도 생중계 도중에 최대 2시간 이전까지 되돌려 볼 수 있다. 또한 생중계 경기를 되돌려 볼 경우 경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도록 경기 점수를 가려두는 스코어 ON, OFF 기능도 제공한다.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인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라이브홈을 통해 생중계 방송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포츠, 게임 등 함께 생중계를 감상하는 이용자들과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가로 모드 뿐 아니라 세로 모드도 가능하다.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는 연내, 생중계뿐 아니라 다양한 VOD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도록 라이브홈을 확장할 예정이다.

다양한 VOD를 감상할 수 있는 네이버 TV캐스트에서는 이용자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감상한 영상간의 장르, 내용 등의 유사성, 최신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미리 예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평소 요리 예능을 즐겨보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개그 프로그램을 감상한 경우, 단기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상위 목록에는 개그 장르의 프로그램이 추천되지만, 요리 예능이 장기적 선호로 판단돼 관련된 영상도 함께 추천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추천목록에서 평소 취향인 요리 영상과 현재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공짜 스마트폰 시대 열렸다

10만원대 초저가 화웨이 Y6 출시

국내 최저가 15만4000원
지원금 받으면 사실상 공짜

출고가 10만원대의 초저가 스마트폰이 나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최저가인 15만4000원에 ‘화웨이 Y6’를 16일부터 판매한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2가지이다.

화웨이 Y6는 LG유플러스 음성무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뉴음성무한 29.9’요금제를 선택하면 13만4000원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15%) 2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출고가와 동일한 15만4000원으로 사실상 공짜로 구매를 할 수 있다.

화웨이 Y6는 070 인터넷 전화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와이파이(WiFi) 망에 접속하면 ‘070 모드’로 전환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서 070 인터넷 전화를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6600원이면 화웨이 Y6로 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화웨이 Y6는 5인치 HD 디스플레이에 램 1기가바이트(GB), 8GB 내장 용량, 2200mAh의 탈착식 배터리를 갖췄다. 또 360도 파노라마 촬영 기능 등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갖췄다. /정문경 기자

세탁기도 원격제어?…

가전제품에 스마트홈 심는다

SKT-동부대우전자
스마트홈 연동기기 개발 협약
드럼세탁기 ‘미니’에 우선 적용

SK텔레콤이 국내 3대 글로벌 가전사인 동부대우전자와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제품 출시를 위한 사업 제휴를 15일 체결했다.

동부대우전자는 국내외 4개 생산거점과 해외 40여개의 판매거점을 보유한 글로벌 가전회사다. 국내뿐 아니라 동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형 가전 제품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럼세탁기 ‘미니’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우선 연동할 계획이다. 미니는 2012년 세계 최초로 벽걸이형으로 출시돼 올해 중국 세탁기 시장 10대 리딩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 누적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SK텔레콤 조영훈 스마트홈TF장(왼쪽)과 동부대우전자 김혁표 상품기획팀장(부사장)이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인 스마트홈 연동 미니는 SKT의 스마트홈 앱을 통해 원격제어와 세탁 종료 알림, 날씨와 연동된 세탁 지수 안내 등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양사는 향후 냉장고, 에어컨, 제습기 등 동부대우전자의 주요 제품으로 스마트홈 연동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KT는 이미 글로벌 가전사인 삼성전자 및 LG전자와 스마트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실용 가전 중심의 동부대우전자와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SKT 측은 설명했다.

SKT는 스마트홈 연동 제품을 올해 안에 25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85개, 연말까지는 100개의 연동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정문경 기자

미술 전시·다큐멘터리 제작·뮤직앨범 공개 등

라이엇게임즈, 오락 넘어 문화콘텐츠로 팬과 호흡

‘플레이어 중심’ 철학에 입각해
풍성·다양한 문화적 경험 제공

라이엇 게임즈가 지난달 종로에 위치한 가나인 시아트센터에서 진행한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전’(왼쪽)과 다큐멘터리 ‘전설, 날아오르다’의 스틸 컷.

세계적인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개발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가 2015년 한해 동안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전하며 플레이어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그 동안 ‘플레이어 중심’ 철학에 입각해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보다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미술, 영상, 음원 등 업계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분야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색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리그 오브 레전드 : 소환전’과 팬아트 공모전

라이엇게임즈는 최근 LoL 콘텐츠를 한국화로 표현해 전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전’을 개최했다.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라오미, 신미경, 신영훈, 유갑규, 이동연, 임태규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지난달 25일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서울 종로에 위치한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됐다. 전시 기간 동안 8000여 명이 관람했으며 관람객들에게 게임 콘텐츠와 한국 미술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작품 20여개의 소규모 전시로 2주간 8000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점은 한국 미술계에서 이례적인 기록으로, 특히 모든 작품이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큰 수치다. 해당 특별 페이지의 조회수도 80만에 달했다.

◆스타플레이어 조명하는 다큐 제작

e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도 풍성하게 선보였다. 특히 ‘2015 시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기간 동안 선보인 ‘전설, 날아오르다’, ‘Live/Play : 살며 게임하며’ 다큐멘터리가 큰 호응을 얻었다. 게임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프로 게이머들과 플레이어들의 삶을 조명한 부분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 세계 팬들에게 ‘LoL계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리는 스타 선수인 SK텔레콤 T1 소속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출연해 화제가 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전설, 날아오르다’ 다큐멘터리 본편 6부작과 더불어 예고편 8편을 공개했으며, 이 영상들은 국내에서만 12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총 70만건을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시청한 조회수는 무려 950만건 이상에 이른다.

◆매년 새로운 롤드컵 주제곡, 챔피언 스토리 음원 등 공개

음원 부분에서는 지난해 롤드컵 기간에 세계적인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가 주제가를 부른데 이어 올해에는 니키 테일러가 주제가 ‘대격돌’을 열창하고 음원을 공개해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또 올해 초에는 게임 속 챔피언들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낸 ‘리그 오브 레전드 뮤직 앨범 Vol.1’를 공개하기도 했다. 모든 음원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라이엇게임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순한 게임 제작사가 아닌 플레이어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 대표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음악, 영상, 미술 등을 총망라한 종합 엔터테인먼트적 문화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❶ 본인확인 ❷ 은산분리 ❸ 대규모 퇴직… 넘어야

〈비대면 방식 때〉

핀테크 2.0 시대

생채인식 DB 활용 방안 고민중
은행법 개정안, 반년째 국회 계류
인사적체 해소·경영 효율화 속도

혁신적인 정보기술(IT)이 금융과 융합하면서 점포 없이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2.0' 시대가 도래했다. 금융기술 발달은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예고하며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안문제와 금융권 인력 감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하반기면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문을 연다. 이들은 카드 이용실적, 온라인 쇼핑이력, 회원등급 등 '빅 데이터(big data)'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 비대면 채널… 보완체계 생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그러나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③ '금융 혁명'이 안긴 과제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해킹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사기 피해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실명확인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정책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불법복사, 부정발급 등 문제가 나타난 기존 공인인증서와 지문 외에 홍채 정보, 얼굴인식, DNA프로필, 음성 프로필 등을 포함한 생채인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요원'

인터넷전문은행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그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K뱅크의 KT 모두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가 어렵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10%의 지분을 가진 카카오가 아닌 5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뱅크의 경우 사업을 주도한 KT는 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각 10%씩 소유하고 있다.

지분구조 상 누가 추진 주체인지 불분명하다보니 향후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투자나 추가 증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T는 지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반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 몸집은 줄이고, 체력은 키우고

시중은행들은 '모바일전문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응하고 있다. 은행영업 방식이 점포 위주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중심이 되면서 인력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 퇴직자수는 지난해의 2배인 3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인사적체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1122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했다. SC은행이 지난달 실시한 특별퇴직신청기간에는 약 1200명의 희망퇴직자가 몰렸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희망퇴직 신청자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 점포수는 매년 100개 이상씩 줄어 2012년 하반기 7835개에서 올 상반기 7480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 임직원수는 13만7593명에서 13만4318명으로 줄어 들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뱅크 3.0'의 저자 브렛 킹(Brett King)은 "인터넷 금융 발전에 따라 앞으로 10년 안에 주요국의 은행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에선 오는 2016년쯤 스마트폰이 은행권에서 가장 주요한 소비자 금융서비스 채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전통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은행들은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 기술은 수용하고 불필요한 몸집은 줄이는 쇄신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보안강화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14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영업부에서 '홍채인증 ATM'을 시연하는 모습. /IBK기업은행

노인성질환 보험, 78세도 가입 가능해요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노인성질환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시니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가입 나이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만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이 가능(기존 종신보험 최대 65세)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고 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포함했다. 이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때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주계약은 고객 니즈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유가족은 한화생명과 제휴한 상조업체의 장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기준 남성 6만2190원, 여성은 5만7440원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건강계단 기부금 전한 생명보험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부하는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변은경 시청역장(뒷줄 왼쪽 첫 번째), 개그맨 황기순씨(뒷줄 왼쪽 여섯 번째), 재단 유석쟁 전무(뒷줄 왼쪽 여덟번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부위원장(뒷줄 오른쪽 여섯 번째),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뒷줄 오른쪽 여덟 번째) 등이 장애아동, 부모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교보생명 '홍보의 산증인' 박치수 상무 퇴임

교보생명 홍보담당 임원이었던 박치수 상무(53·사진)가 회사를 떠난다.

20여년간 보험업계 홍보의 '산증인'으로 통했던 그는 최근 임원 인사에서 퇴임이 결정됐다.

박 상무는 생명보험업계에서만 20여년간 홍보맨으로 활약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 위치한 교보생명 빌딩 외벽의 '광화문 글판'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그는 광화문 글판 문안선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었다. 시대적 의미와 대중성을 감안해 감동적인 문구를 선정해 왔다.

박 상무는 1987년 교보생명에 입사한 이후 올해까지 28년을 다녔다. 홍보팀장을 거친 그는 지난 2012년부터 홍보담당 임원을 맡았었다.

그는 평소 홍보에 대해 "없는 것을 만들거나, 있는 것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론을 갖고 있었다.

한편 박 상무는 당분간 교보생명 자문역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필 기자

대포통장 10% 줄였다… KEB하나은행, 피해예방 표창

금융사기예방팀·대포통장 제로 등 꾸준한 활동… 금융사기 척결 선도

KEB하나은행은 15일 '2015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2014년 하반기 대포통장 비율이 0.26%에서 2015년 하반기 0.02%로 10분의 1로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에 금융사기 예방을 전담하는 전문팀인 '금융사기예방팀'를 설치했다. '금융사기예방팀'에서는 대포통장 사전발급 방지 단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억제 단계, 사기자금 인출억제 및 범인검거 단계 등 금융사기 단계별 원스톱(One-Stop)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했다.

'대포통장 제로(ZERO) 활동'을 통해서는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POP, 배너, 현수막, 스티커, 책받침을 제작, 영업점에 비치해 대포통장의 불법성과 피해예방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사내 인트라넷에는 '대포통장 112' 전용 게시판을 개설해 사고예방 정보공유 및 신사기수법을 전파하고 본부와 영업점간 핫 라인을 구축했다. 특히 영업본부-지방경찰청, 영업점-경찰서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기범 검거에 대한 적극적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KEB하나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웹툰 제작 및 대고객 홍보 활동,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내방송, 영업점 객장방송, 본점 외벽 대형모니터를 통한 금융감독원 제작 홍보물 방송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적 피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선량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금융거래에 대한 불편 및 불안 확산으로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 KEB하나은행은 전직원이 합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LG생건 '황제주' 등극… 시총 상위 41%는 물갈이

〈11월말 100만8000원〉

아듀, 2015증시 ③ 주식시장의 뜬 별, 진 별

한미약품 '최대 기술수출'에 약진
삼성전자·현대차 '부동의 1·2위'
수출부진 IT·조선업종 '추풍낙엽'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올해 증시에선 식음료, 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부문 상장사가 새롭게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조선, 기계, 건설, 전기전자 등 제조업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지만 주력 수출 산업인 제조업의 약화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부동의 1·2위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삼성전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10년째 1위다.

현대자동차(32조4907억원)도 2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현대모비스(6위·24조2872억원), 기아자동차(9위·21조2815억원)가 시총 10위권에 진입하면서 현대차 3인방이 모두 시총 '톱10'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4위)과 아모레퍼시픽(7위) 등이 시총 100대 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최고의 주인공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은 8조1233억원으로 LG전자, S-Oil, 삼성SDI, 롯데케미칼, 한국항공우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낸데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 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를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23일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만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황제주'의 자리에 올랐다.

11월 말 주가는 100만8000원으로 시가총액 17위에 자리하고 있다.

연초 60만원대이던 LG생활건강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면서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LG생활건강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19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증가했다. 매출액은 1조3868억원으로 12.7% 늘고, 당기순이익은 1360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시가총액 순위 변동〉 (단위:백만원)

순위	2014년 연말		2015년 11월 30일	
	종목명	시총	종목명	시총
1	삼성전자	195,466,220	삼성전자	189,132,349
2	현대차	37,226,725	현대차	32,490,781
3	SK하이닉스	34,762,113	한국전력	31,424,142
4	한국전력	27,411,866	삼성물산	25,025,436
5	삼성에스디에스	22,710,384	삼성전자우	25,025,436
6	POSCO	24,019,973	현대모비스	24,287,294
7	삼성전자우	23,723,931	아모레퍼시픽	23,588,001
8	NAVER	23,469,427	SK하이닉스	23,004,875
9	삼성물산	21,330,000	기아차	21,281,576
10	삼성생명	23,300,000	LG화학	21,074,210
11	현대모비스	22,973,152	NAVER	20,799,450
12	SK텔레콤	21,639,851	삼성생명	20,600,000
13	기아차	21,200,503	삼성에스디에스	20,195,606
14	신한지주	21,078,172	신한지주	19,655,573
15	KB금융	13,966,614	SK	18,997,280
16	삼성화재	13,383,391	SK텔레콤	18,894,496
17	아모레퍼시픽	12,981,117	LG생활건강	15,743,143
18	LG디스플레이	12,040,498	POSCO	14,734,575
19	LG화학	11,995,069	KT&G	14,690,297
20	현대글로비스	10,931,250	삼성화재	14,520,388

우=우선주, 자료=한국거래소

◆당분간 자리다툼 치열할 듯

시가총액 상위종목 간 자리 경쟁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지속적인 확대 우려로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증시 대표 대형주들이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에 나서 장세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형주 시가총액 변동이 극심한 것은 전통 강자였던 자동차·철강업 악화 등 구조적 변화도 일부 반영하지만, 동시에 주식시장이 다소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업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중국 소비테마, 미국 금리 인상 등 이슈에 따라 크게 휘청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41%가 물갈이 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0월 30일 종가 기준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을 2005년 말과 비교한 결과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41곳 중 36.6%(15곳)는 식음료 서비스 유통 등 내수 업종이었다. 탈락 기업 중 26.8%(11곳)는 정보기술(IT)·전기전자·조선·건설 등 수출 주력 업종이었다.

특히 식음료는 올해 시총 100대 기업 중 9곳으로 가장 많은 업종이었다. 2005년에 비하면 2곳이 늘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어룡 회장(가운데)이 영유아 보육시설인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신증권

대신금융그룹, 나주에 사랑의 성금 전달

소외계층·다문화가족 지원

대신금융그룹은 15일 오전 이어룡 회장이 전남 나주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성금은 전남 나주지역의 지체장애인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 지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회장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1년부터 시작된 대신금융그룹의 사랑의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의료비,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금, 의료기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지원규모는 86억원에 달한다.

대신금융그룹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작된 이어룡 회장의 나주지역 사랑의 성금 전달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고양재봉 창업자의 유지를 받들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현대證 '신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 선보여

현대증권은 최근 '신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개정세법에 따라 신설된 신연금저축펀드는 만기 전 해지 등 연금 외 출금을 할 경우 환급 받은 세금을 재부담해야 한다.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신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는 이러한 신연금저축펀드 가입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도 인출과 해지로 인한 세제혜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신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최대 60%까지 CMA계좌로 담보대출(최대 4000만원)이 가능하며, 연 3.0%의 업계 최저수준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180일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6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두현 상품전략본부장은 "고령화 및 1%대의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인 신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본 서비스는 일시적인 유동성 필요 시에 신연금저축펀드를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액면분할 상장사, 개인 투자자 늘어 주가 호재

지난해 9개사에서 25개사로 증가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상장사가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늘었고, 주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상장업체 수는 총 25개사(유가증권시장 9개사·코스닥시장 16개사)로, 지난해의 9개사보다 178% 증가했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이나 기업가치 등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액면분할로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 회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거래소가 액면분할 기업 25개사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5개사는 변경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이 감소한 10개사는 저가주(10만원 미만)로, 액면분할 후 추가적인 개인투자자의 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종목이었다. 거래소는 "액면분할이 주가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시장 기업들은 주주친화 정책의 하나로 액면분할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해외 주요국(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연평균 액면분할 기업 수는 선진시장이 96개사로, 신흥시장(22개사)의 4.4배에 달했다.

거래소 측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상장 전 액면분할에 의한 유동성 공급, 기존 고가주 상장기업의 액면분할을 통한 유동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액면분할 비율은 2년 연속 1대 10의 비율(액면가 5000원→액면가 500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액면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지난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가 66%로 과반수였으나 올해는 정기주주총회가 52%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문호 기자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신용거래 내용·위험성 스스로 파악해야

㉒ 주식 신용 거래, 약인가 독인가?

손실 규모·속도 크고 빨라
나에게 맞는 투자 찾아야

만약 당신이 철저한 분석 끝에 확신을 갖고 A라는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는데, 바로 가격이 폭등해 주식 가치가 2000만원이 되었다고 치자.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그 답을 안다. 이익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바로 "저런,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어치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1억원의 돈이 없는 사람들 조차도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빚을 내어 투자(신용거래)를 했다면, 자신의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차입을 통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똑똑한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자그마치 약 7조원 정도의 주식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

유의할 것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손실의 규모와 속도도 크고 빠르다. 신용거래를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18억원의 투자를 맡겼으나 삽시간에 투자원금이 1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만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고객은 계좌 개설 당시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했고, 계좌개설서류에도 "안정적 투자 권유"라고 씌어 있었다. 이 고객은 과거에 신용거래 경험도 없었다. 한편, 고객이 17억원의 손실을 입는 사이에 증권사는 수수료로 3억원을 챙겼다. 고객은, 직원이 위험한 신용거래를 자신에게 권유한 행위는 부적합한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우선, 증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상품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객은 신용거래의 내용, 위험성 등에 관한 스스로의 파악이 부족했고, 신용거래 내역을 알고도 방관을 하였다. 손실의 주된 이유는 신용거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주식시장 폭락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직원과 고객의 책임을 50대 50으로 보았다.

주식신용거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약이지만 안정추구형 투자자에게는 독이다. 신용거래 그 자체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잘 맞고 안 맞고가 있는 것이리라.

/윤법렬 변호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세종고속道 10개년 도시철도

'겹호재' 안성 부동산시장 함박웃음

저렴한 땅값대비 성장 기대에 잇단 문의·웃돈매수 대기까지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 건설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안성 푸르지오 아파트 야경 투시도.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 최대 화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구리~용인~안성~오송~세종) 건설 발표였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고속도로 착공 소식은 새로운 경부축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곳은 경기도 안성이다. 안성은 올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2% 수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인 4.5%를 한참 밑돌았다. 하지만 세종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투자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고 있으며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씩 붙어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일부 미달이 예상됐던 안성 제4산업단지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100대 1의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웃돈 매수 대기수요도 형성됐다. 11월 안성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은 71.4%로 하반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안성지역 개발호재 잇따라

안성 지역의 호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지난 2013년 7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5조8573억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진행 후 최종 승인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계획'은 광명시흥선(천왕·개봉~KTX광명역), 동탄1호선(광교~동탄~오산역), 동탄2호선(병점~동탄), 파주선(운정신도시~킨텍스), 성남1호선(판교~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판교~정자), 수원1호선(수원역~장안구청), 평택안성선(서정리역~안성터미널), 용인선연장(기흥~광교) 등 9개 노선 136.1㎞ 건설 공사다.

오는 2020년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의 분양시장 흥행을 이끌어온 동탄2신도시에 대한 도심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흥, 광교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용인선, 수원선 등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평택 서정리에서 고덕신도시를 거쳐 가사동 안성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2.5km 노선은 삼성과 LG 등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평택과 안성지역의 분양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평택 지역은 고덕국제도시(삼성반도체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지역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성 지역은 세종고속도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계획 외에도 평택안성선과 제2경부고속도로(2021년 예정) 건설이 계획돼 있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름에도 분양가가 800만원선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진다.

◆안성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중

안성지역에는 2년 만에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인 푸르지오 759가구가 분양되고 있다. 또한 독일 BMW사가 조일리산업단지 일대에 전체면적 8만㎡의 BMW 부품보관센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600여명, 연간 매출 6100억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안성 진사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운다.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전시관, 키즈테마파크, 아쿠아랜드, 스포츠전문관 등으로 꾸며진다. 쇼핑몰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4000여명, 생산유발 7600억 원, 부가가치 4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밀폐용기 제작기업 락앤락이 18만5000㎡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동 중이며 안성 원곡면에 전체면적 15만3000㎡규모의 홈플러스 안성물류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분양하이라이트

닥터아파트 분양단지 평가서비스 'HOT분양단지' 오픈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HOT 분양단지'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관심이 높은 분양단지를 뽑아주고 장·단점을 분석해 준다. 아울러 닥터아파트 회원을 대상으로 예상 1순위 평균경쟁률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닥터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설문조사는 견본주택 개관 약 한 달 전부터 당첨자 계약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기간이 끝나면 분양단지별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5명을 뽑아 온라인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청약자가 냉철하게 분양단지를 평가해 옥석을 가려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삼성물산은 인도 차르가온 마을에서 임직원 150여명

삼성물산, 인도 차르가온에 '삼성물산 2호 마을' 건설

과 함께 글로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 2호 마을 건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택 50세대와 화장실 81세대 신축, 학교 2곳 리모델링을 하고 930여명에게 식수위생 개선교육 등을 펼쳤다. 또한 베트남 타이응우옌 성나미 마을을 삼성물산 3호 마을로 선정해 주택 개보수, 신축 공사를 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2호 마을에 입주 예정인 카비타씨는 "직접 벽돌 하나하나를 나르며 건물을 세워 준 삼성물산 직원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거창 푸르지오 견본주택 18일 개관

대우건설 전용면적 62~84㎡ 677가구 송정지구 내 유일 분양 아파트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송정도시개발구역 A1BL 일원에 '거창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62~84㎡ 677가구 규모다. 주택유형별로는 ▲62㎡A 157가구 ▲62㎡B 48가구 ▲74㎡ 208가구 ▲84㎡A 129가구 ▲84㎡B 135가구 등 전가구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거창군 최대 규모 계획주거단지인 송정도시개발지구 내에 유일하게 분양되는 아파트다. 송정도시개발지구는 개발면적 24만4750㎡ 부지에 거창군 보건소(이전 예정), 서경병원, 패시브하우스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 준주거시설, 수변공원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설계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분양가는 3.3㎡ 평균 600만원대 중반에 책정될 예정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송정도시개발지구 내(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53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김포사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모집

서희건설 전용면적 65~84㎡ 435가구 18일 분양 홍보관 오픈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9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김포사우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칭)가 오는 18일 분양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경기도,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해 건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10개동 전용면적 65~84㎡ 435가구 규모다. 주택유형별로 ▲전용 65㎡ 204가구 ▲전용 75㎡ 60가구 ▲전용 77Am² 19가구 ▲전용 77Bm² 20가구 ▲전용 84Am² 75가구 ▲전용 84Bm² 57가구다.

단지 인근에 오는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며 김포한강로 시네폴리스IC가 뚫리면 올림픽대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교통여건은 개선된다.

단지는 김포시청과 김포시법원, 김포시보건소 등 관공서는 물론 CGV, 김포시민회관, 사우문화체육광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홈플러스와 롯데하이마트 등 쇼핑시설이용이 편리하며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이 예정되는 등 호재가 잇따른다. 분양 홍보관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소파'와 '돌침대'가 만났다

장수돌침대 '미니-M 쇼베드' 선봬
50도까지 조절·온열 찜질 기능도

장수돌침대가 소파와 침대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바퀴달린 '미니-M 쇼베드(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공간에서 침대와 소파를 겸해 사용할 수 있는 미니-M 쇼베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천연석의 면적은 70㎝로 그대로 유지하고 가로폭을 81㎝로 기존 싱글침대 사이즈에 비해 약 20㎝ 가량 줄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이동캐스터가 장착돼 누구나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은 심플함을 추구하는 모던스타일로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이고 클래식한 멋을 선사하는 카멜 컬러의 스플릿 가죽을 사용해 세련미를 더했다. 수면, 휴식과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명품

장수돌침대의 기술력으로 만든 미니-M 쇼베드는 5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해 뜨끈한 천연석 온열 찜질도 가능하다.

김정수 장수돌침대 부사장은 "1910년 설립된 여행용 캐리어 업체 샘소나이트가 가방에 바퀴를 다는데 64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장수돌침대는 23년만에 돌침대와 흙침대에 바퀴를 달았다"며 "고정관념을 타파한 장수돌침대 미니-M 쇼베드는 주택의 소형화와 1인가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개발된 제품으로 건강침대의 장점과 소파의 편안함을 모두 제공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3세대 마트’ 시험대 된 창원 양덕점, 연일 대박 행진

신동빈의 마법… 롯데마트에도 통했다

원거리 마다않는 소비자 덕에
개장 10일만에 57억어치 팔려
롯데 측 “내년 30곳으로 확대”

롯데마트 양덕점 1층 페이지그린 매장(왼쪽)과 홈퍼니싱 특화매장인 ‘룸바이홈’. 페이지그린 매장에는 원예상품과 서적이 진열됐다. 고객이 쉴 수 있는 의자와 카페도 있어 힐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롯데마트

3세대 대형마트 롯데마트 경남 창원 양덕점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양덕점은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롯데마트의 야심작 ‘3세대 대형마트’의 첫 시험무대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오픈일인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양덕점의 매출은 57억원을 돌파했다. 양덕점은 오픈 당일에만 7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기대이상의 성과다.

지방 대형마트의 월평균 매출은 50억~60억원 수준이다. 양덕점은 단 열흘만에 지방 대형마트 평균 월매출을 가뿐히 넘어섰다.

롯데마트 양덕점은 원웨이(일방통행)동선과 길고 높은 진열대(길이 20m, 높이 3m)를 이용해 마치 대형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느낌을 준다. 소비자가 상품을 둘러보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양덕점의 차별적인 요소다. 일반 대형마트는 짧고 낮은 진열대와 자유동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끼리 카트를 밀며 뒤엉키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당초 롯데마트 양덕점의 원웨이 쇼핑은 소비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양덕점은 해외에서 성공한 창고형 마트의 카테고리 킬러 특징과 국내 정서에 맞는 정돈되고 편한 쇼핑을 결합한 형태다. 매장 곳곳에는 고객들이 앉아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특히 원예·서적·음반을 판매하는 ‘페이지 그린’(Page Green) 매장 가운데에는 카페를 입점시켜 휴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별도의 휴식공간으로 여유있는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방문한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한 것도 양덕점만의 경쟁력이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를수록 객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양덕점에 구현된 7개의 ‘생활제안형’ 특화 매장도 매출을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특화매장은 유사 점포의 해당 카테고리 매출에 비해 최대 2.4배 이상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홈퍼니싱 전문 매장인 ‘룸바이홈’ 의 경우 유사 점포의 매장보다 142%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린페이지 매장도 99.5% 높다. 패션잡화 편집샵 ‘잇스트리트’는 62.1%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양덕점을 찾는 고객은 인근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10일간 양덕점을 찾은 고객은 14만명이며 3㎞ 내 1차 상권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5㎞, 7㎞ 이상 떨어진 2차·3차 상권보다 거리가 먼 소비자들까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덕점의 1차상권 소비자 매출 의존도는 35.5% 인근 매장 1차 상권 소비자 매출 구성비인 54.5%보다 훨씬 낮았다.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매장이라는 이야기다.

양덕점의 성공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내년에 3세대 매장을 3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병문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양덕점을 통해 롯데마트의 공간 재창조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생활 제안 매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해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새로 나왔어요

롯데주류

6900원에 즐기는 칠레 ‘산타리타 L 와인’

롯데주류가 ‘산타리타’의 데일리 와인 ‘산타리타 L 와인(사진)’을 선보인다. 이 와인은 750㎖ 1병당 6900원으로 롯데주류가 칠레의 산타리타와 합작해 기획했다. 까버네 소비뇽, 메를로, 샤도네이 총 3종으로 출시된다. 레이블 전면을 장식한 ‘L(엘)’은 ‘Legend(전설)’의 약자로 스페인이 칠레를 점령했을 때 산타리타 와이너리에 몸을 숨기며 칠레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의 전설적인 사건을 기념했다. /유현희 기자

해즈브로코리아

키덜트 사로잡는 ‘스타워즈’ 굿즈 출시

해즈브로코리아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컬렉터용 완구를 공식 출시한다. 출시되는 제품은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블랙시리즈(BS) 포스 FX 광선검’(27만 6600원) ▲얼티밋 FX 광선검 - 카일로 렌’(11만 1000원) ▲배틀 액션 밀레니엄 팰콘’(27만 6600원·사진) 등 3종이다. 광선검은 토이저러스에서 팰콘은 전국 대형마트에서 만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이니스프리

제주 ‘슈퍼푸드’로 꾸미는 맑은 동안 피부

이니스프리가 ‘슈퍼푸드 프롬 제주 라인(사진)’을 15일 출시한다. ▲피지를 컨트롤하는 ‘브로콜리 클리어링 라인’ ▲맑은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는 ‘레드비트 브라이트닝 라인’▲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블루베리 리밸런싱 라인’ ▲누구나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트 마일드 모이스처 라인’ ▲토탈 항산화 케어가 가능한 ‘케일 안티옥시던트 라인’ 등 5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유현희 기자

KGC인삼공사 “홍삼 화장품 ‘동인비’로 피부 가꾸세요”

정관장 6년근 홍삼으로 만든 프리미엄 홍삼화장품 ‘동인비’가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단법인 미스코리아 녹원희와 함께 연말모임 피부 고민을 위한 ‘세월의 흔적 없애주는 백옥 피부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오리온, 제과업계 최초 中 원료 공장 세워

신장구 베이툰시에 플레이크 공장 가동

오리온이 국내 최초로 중국에 스낵 원재료 공장을 설립했다.

오리온은 중국 신장구 베이툰시에 감자스낵의 원재료인 ‘플레이크’(flake)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설립,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베이툰 공장은 오리온의 중국 내 6번 째 생산 기지다. 오리온은 감자 주산지이면서 중앙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해 베이툰에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베이툰 공장에는 2차 준공 시점인 2017년까지 현지화 기준 2.25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2만 여 톤의 감자 플레이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감자 플레이크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감자’(현지명:야!투도우)와 ‘예감’(슈위엔), ‘고래밥’(하오뚜어위) 등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오!감자’는 지난 11월 중국에서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단일 국가·단일 제품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예감과 고래밥도 1000억원 브랜드로 성장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베이툰 공장 설립으로 안정적인 감자스낵 원재료 공급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중국 시장에서 감자스낵의 열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삼성물산

6개 패션브랜드, 중국 온라인 시장 ‘티몰 글로벌’ 입점… 진출 본격화

“니하오 구호.”

삼성물산 패션부문 6개 브랜드가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15일 에잇세컨즈, 빈폴액세서리, 구호, 라베노바, 준지, 비이커의 6개 자사 브랜드가 중국 최대 온라인 기업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티몰 글로벌은 알리바바가 올 초 오픈한 글로벌 해외직구 브랜드몰 개념의 플랫폼이다.

티몰 글로벌 입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알리바바의 소셜커머스 플랫폼인 ‘쥐화수안’을 통해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첫 브랜드데이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티몰 글로벌과 쥐화수안 프로모션을 통해 600여종의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해외구매 특성에 따라 배송이 늦어지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을 통해 주문에서 고객 수령까지 5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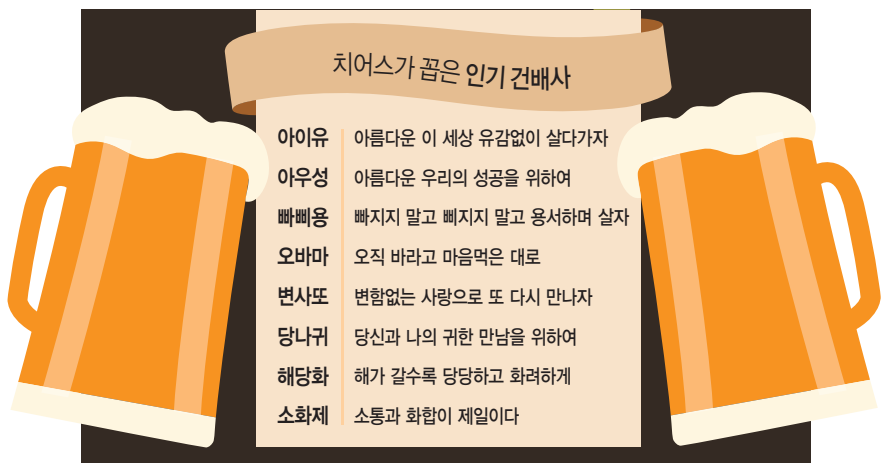
삼성물산 패션부문 중국법인은 이미 2012년부터 빈폴, 엠비오, 라피도 브랜드를 티몰에 입점시킨 바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온라인사업부장 박솔잎 상무는 “알리바바와 지난 9월 MOU를 체결한 이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고 쥐화수안과 공동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면서 “한국과 중국의 패션·온라인 사업을 대표하는 1등 기업이 만나 중국 시장에서 패션한류 바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아이유·빠삐용·변사또 맛깔난 건배사 인기

생맥주전문점 '치어스' 인기있는 건배사 추천



송년모임이 한창인 12월을 맞아 생맥주전문점 치어스가 매장에서 인기있는 건배사를 추천해 화제다.

치어스는 14일 줄임말·외국어·시대상을 반영한 인기있는 건배사를 소개했다.

줄임말 단어로는 '아이유' '아우성' '빠삐용' '오바마' '변사또' '당나귀' '해당화' '소화제' 등이 있다.

'아이유'는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없이 살다가자', '아우성'은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빠삐용'은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오바마'는 '오직 바라고 마음먹은 대로', '변사또'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만나자', '당나귀'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해당화'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소화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라는 의미다.

외국어 건배사도 인기다. 라틴어 건배사로는 '현재를 즐기자'라는 의미의 '카르페 디엠', '술 속에 진실이 있다'는 의미의 '인 비노 베리타스',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의미의 '스페로 스페라'가 특히 인기다.

그리스어로는 '가진 것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함께하는 관계'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와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아 보트르 상태'도 눈길을 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건배사도 인기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끌면서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건배사가 인기를 끌었고 영화 '명량'의 대사를 차용한 '신에게는 아직 12명의 소주가 남았습니다' 등의 건배사가 인기를 끈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맛집 찾아 삼만리… 내년 창업 대세는 '미식 유목민'

〈美食〉

SNS로 정보 얻고 원거리도 감수 '나홀로족' 위한 음식점도 대세로

내년 창업 시장은 '미식 유목민'의 확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결합된 외식문화가 급성장 할 전망이다. 미식 유목민은 미식(Gastronomy)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맛 집을 찾아 원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맛집 정보 공유 증가가 창업 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식 유목민의 등장으로 특별한 맛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반조리 식품을 공급받는 매장 대신 요리하는 매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철판요리주점 요리마시따는 철판요리의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라는 DIY(제작·수리·장식을 직접 하는 것) 개념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요리가 오꼬노미야끼다. 실제 요리마시따의 특징은 고객이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토핑과 소스를 직접 선택 가능해 나만의 오꼬노미야끼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인기를 얻고 있다.

오드리헵번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커피전문점 오드리헵번 카페는 기존 커피전문점과는 달리 엄마로서의 오드리헵번의 마음을 담은 메뉴를 선보여 카페창업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있다. 오드리헵번이 생전 자녀들에게 브라우니를 만들 때 사용한 조리법으로 개발한 헵번 브라우니 등 프리미엄 메뉴가 특징이다.

'DIY요리'를 도입한 요리마시따, 특별한 맛을 추구하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요리마시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용이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결합해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세탁편의점 월드크리닝은 올해 9월부터 매장별로 포인트 적립을 시작했다. 이용금액의 2%가 적립되며, 10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월드크리닝은 이외에도 수요일과 토요일 침구류 30%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알리고 있다.

오리훈제 바비큐전문점 옛골토성은 카카오톡과 친구를 맺으면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도 포토 후기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외식상품권을 증정한다. 젤라또 디저트카페 카페띠아모는 올 여름 '카카오오더' 도입, 시범에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의 젤라또 등을 알리면서 소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카페띠아모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라떼 음료 3종과 트리를 닮은 베리망고 와플도 출시했다.

몇 년전부터 강세를 보인 1인 식사 수요의 증가는 내년에도 창업계의 화두로 이어질 전망이다. 나홀로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은 최근 몇년 내 크게 늘었다. 혼자서 하는 식사지만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고르는 방식의 메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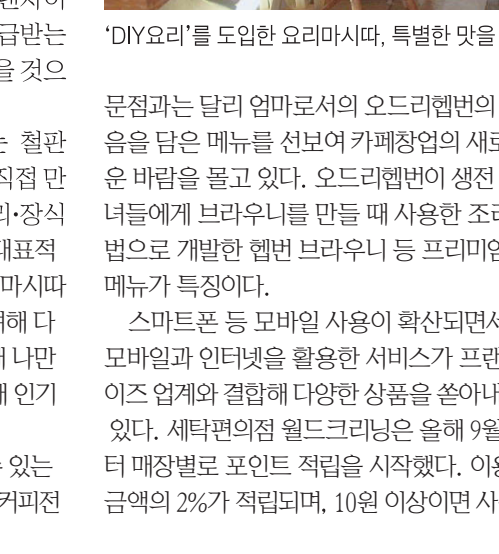
샌드위치&커피전문점 멜랑제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이로 인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고 있다. 본사인 CK에서 샌드위치의 다양한 재료를 직접 가공 생산해서 공급함에 따라 주방의 일도 크게 줄였다.

프리미엄 김밥전문점 로봇김밥은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현미와 잡곡을 이용해 만든 김밥을 선보이고 있다. 로봇김밥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원재료와 채소의 비중을 높여 5대 영양소를 고루 담은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소비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이라며 "최근의 소비트렌드인 SNS와 건강이라는 콘셉트의 매장은 내년에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필라테스강사 심으뜸, KDB대우증권 모델로



필라테스 강사 심으뜸이 KDB대우증권 CF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사진〉

최근 방영 중인 KDB대우증권 광고에서 심으뜸은 '연말정산 산타녀'로 변신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심으뜸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개인연금 피트니스 헬스장 산타녀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심은뜸은 지난 13일 방송된 KBS2 '출발 드림팀 시즌2'에 출연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번 KDB대우증권 광고는 심으뜸과 함께 재미있는 배경음악과 근육질의 '루돌프남'을 등장시켜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8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탭댄스·춤에 합창까지

이화의료원 '이색 교직원의 날' 눈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교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20대 초반 새내기 간호사부터 중년 교수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틈틈이 연습해 온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의무부, 간호부, 사무부로 이뤄진 10개 팀이 합창과 탭댄스, 댄스 등의 장기자랑을 펼쳤다. 합창경연 1위를 차지한 병동간호사 '레인보우' 팀과 장기자랑 1위를 차지한 영상의학과 '꽃보다 7남매' 팀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행사 중간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반짝거리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에 맞춰 깜짝 공연을 선보였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토요일 진료 활성화, 외래 환자 수 증가, 병상 가동률 향상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경영진과 교직원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창업단신

▲닥터스튜어트, 송년 특가 행사

영국 프리미엄 허브티 닥터스튜어트가 오는 31일까지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닥터스튜어트 쇼핑몰(drstuartshop.co.kr)과 GS샵, CJ 오쇼핑에서 닥터스튜어트 허브티를 구매하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릭스도자기, 힐링요 찜질기 강화

에릭스도자기가 신제품 '힐링요 관절 찜질기'와 '힐링요 회음부 찜질기' 출시를 통해 '힐링요 도자기 찜질기' 제품군을 강화한다. 힐링요 도자기 찜질기는 원적외선 중에서도 생명체에 가장 유익한 파장인 생육광선을 방사한다.

▲토프레소, 12월 창업설명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토프레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프레소 창업설명회는 서울 한남동 토프레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2월 16일까지다. 02-565-3211

▲ 솔가, 뮤지컬 '신데렐라' 이벤트

친환경 비타민 브랜드 솔가가 뮤지컬 '신데렐라'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한 뒤 솔가 공식 쇼핑몰(http://www.solgar.co.kr/) 이벤트 페이지에 링크 주소와 함께 댓글을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총 25명에게 티켓을 제공한다.

▲'커피에반하다' 女인권진흥원과 협약

커피에반하다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피해자 등 취약계층여성에게 바리스타를 비롯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커피에반하다는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인턴십센터 설립을 위해 진흥원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장수가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초벌구이 생돼지 전문점 '장수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한다. 직영 중심의 장수가는 현재 논현 본점을 기점으로 서울 중심 상권에 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장수가는 오피스 상권은 점심 및 회식장소로 최적화한 '장수가 Premium'을, 대학 상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즐길 수 있는 '장수가 Ace'로 이원화한 브랜드 전략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

'한-대만 학술교류센터' 건국대 中연구원에 설립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오른쪽)는 대만 중국문화대학(총장 리톈런)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 중국연구원 산하에 '한-대만 학술교류센터'를 공동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경영관에 문을 연 '대만학술교류센터'는 중화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건국대의 전략과 한국에 대만 교육계의 전진 기지를 마련한다는 중국문화대학의 윈윈 전략이 합쳐진 결과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학술 교육교류가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한-대만 학술교류센터는 두 나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간의 상호 학술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대만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국내 대학과 교수 학생들을 상호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히번 학술교류센터 개설을 기념해 12일 중국문화대학, 국립대만대학, 국립금문대학, 곤산과기대학 등 총 16개의 대학, 27명의 대만 학계와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한국 고등교육 참관단'을 초청해 한·대만 교육교류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국대와 중국문화대학은 1969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5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100여 명의 교환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간호사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천직… 발전의 연속이니 힘 내세요

만사형통 여자 79년 11월 14일 16시

Q 안녕하세요. '사주 속으로'를 흥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담내용만 보아 오다가 앞으로 제 인생행로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은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으나 야근이 잦고 집안일에 전념을 못하고 있으며 남편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전업주부로만 지낼 수 없는 형편이며 남편은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일 년에 반은 집에서 지내며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제가 간호사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화초의 성정으로 가냘프게 보이는데 작은 일에도 놀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인의 성정은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천간 을목(乙木)으로 완벽한 성격이라 귀하만큼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직원들도 구하기 어렵기에 개인 사업도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유금(酉金)으로 금기를 띄어 권위적인 면이 있는데 부부간에는 이런 연유로 매사 다투거나 짜증스럽기까지 하는데 남도 자신과 같이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매우 거부반응을 보이는 자신의 성정이 남편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화초가 겨울을 만나 꽃을 못 피고 있는 형상이며 등라계갑(藤蘿繫甲:덩쿨풀이 큰 나무둥지를 휘어 감고 올라감)인데 태양과 같은 따뜻한 화(火)기가 절실하니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내색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나 너그럽게 감싸질 않으니 짜증이 섞이고 다투다 보면 편두통을 앓기 쉽고 간이나 비장이 약하며 치아도 부실하게 됩니다.

이전최화(날카로운 가위로 화초를 잘라 버림)의 모습으로 사주지지에 관살(官殺:남자를 나타냄)이 혼잡한 가운데 생일지에 남편이 자리를 하고 있으나 대운에서 액운이 끼어 사이가 안 좋은 것인데 이대로 가다보면 2017년에도 급기야 사네, 안사네로 이어지기도 하니 유념해 두십시오.

어차피 다녀야 할 직장, 힘든 것을 내색하는 허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시주(生時柱)에 2016년도는 천을 귀인과 같은 협조자가 눈에 띄니 발전의 연속선상에 올라 사회 운은 길 선합니다. 자식궁에도 덕이 있어 자식을 잘 두게 되며 간호사 일은 유금(酉金)사주로 천직이 될 수 있으니 매우 합당한 직업이 되니 딴 생각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16일 (음 11월 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0년생 모두다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72년생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낫게 될 것입니다. 84년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 49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체를 잘하세요. 61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3년생 서로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85년생 무리한 추진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2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74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86년생 취직은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토끼 51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 입니다. 63년생 내 자신을 추스리세요. 75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습니다. 87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용 52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64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76년생 중개인이 필요할 때 입니다. 88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뱀 53년생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9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말 54년생 신중히 결정하세요. 66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양 55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7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79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1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활기를 찾게 됩니다. 68년생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80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92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닭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9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81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9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개 58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70년생 주위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82년생 친구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94년생 주위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가만히 있지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71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타협하세요. 83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겠습니다. 95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SUDOKU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3		8	2
								4
			5		2	6		
6		2	3			7	4	8
9								5
5	7	3			8	2		6
		7	8		6			
3								
8	9		7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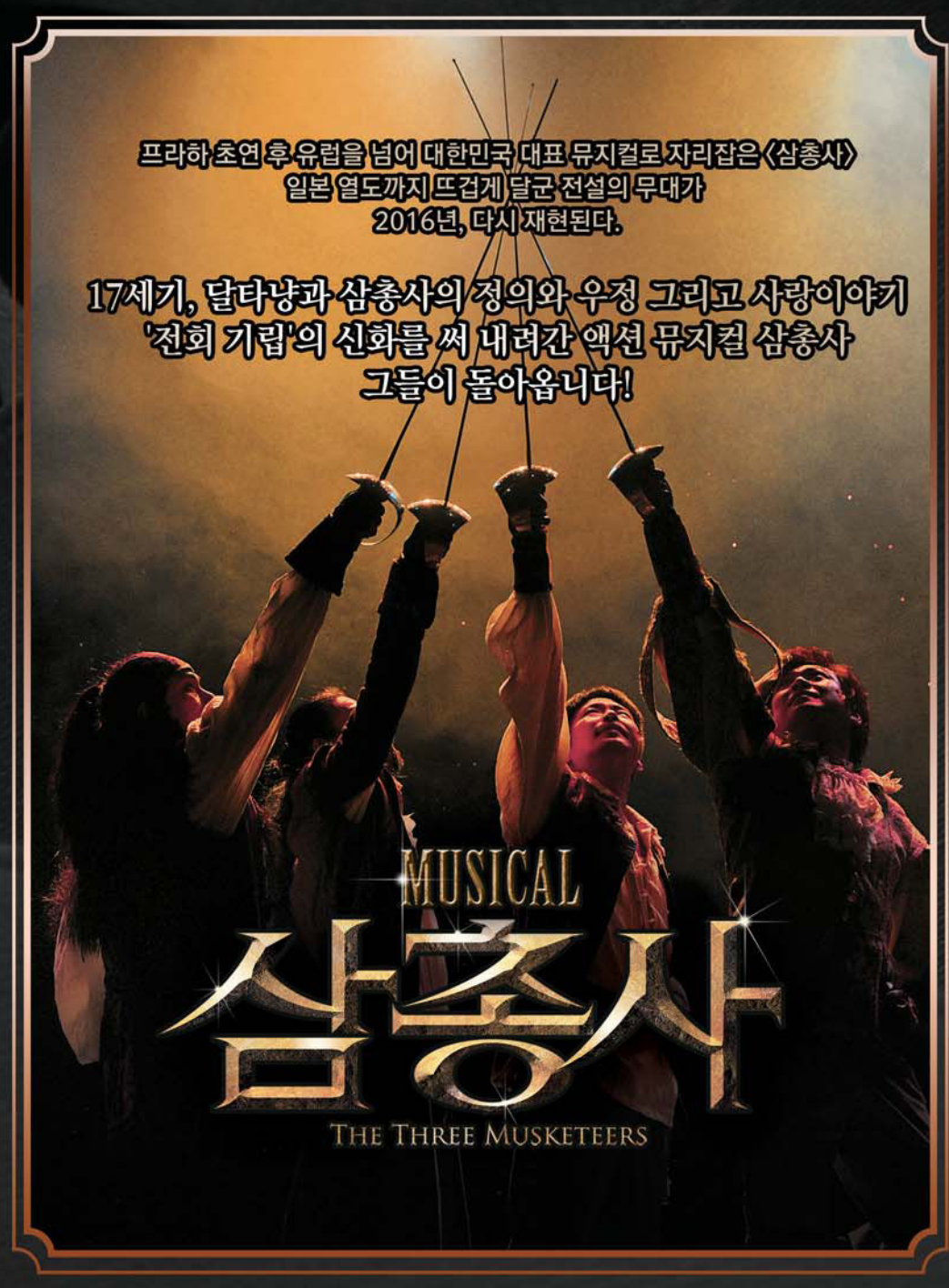
5							4	
				4	7		2	
				2	8		6	
3	1				4	6		2
4	5						8	1
8		2	7				3	9
	7		4	5				
	8		2	6				
	9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3	5	4	1	2	7	6	9	8
7	6	8	4	5	9	1	2	3
1	2	9	3	8	6	5	7	4
5	7	3	4	1	8	2	6	9
6	9	2	7	6	5	3	1	8
8	4	1	2	3	9	7	5	6
9	3	5	8	4	1	6	2	7
2	8	7	6	9	3	4	1	5
4	1	6	5	7	2	9	8	3

5	2	8	3	7	4	9	6	1
6	9	3	2	5	1	8	4	7
1	8	5	9	4	6	3	7	2
2	7	3	6	8	9	1	5	4
8	6	9	2	1	5	4	3	7
4	5	1	9	3	7	6	2	8
3	1	4	7	6	8	2	9	5
7	4	2	1	9	3	5	8	6
9	3	6	5	2	8	7	1	4

Audition



뮤지컬 [삼총사/잭더리퍼]오디션 개최

2016년,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삼총사' 그리고 '잭더리퍼'와 함께할
배역 및 앙상블 배우를 찾습니다.

공연일시

- 삼 총 사 : 2016년 4월 1일 ~ 2016년 6월 26일
- 잭더리퍼 : 2016년 7월 15일 ~ 2016년 10월 9일

오디션일정

- 삼 총 사 : 2016년 1월 11일
- 잭더리퍼 : 2016년 1월 18일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 (www.mmusical.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잭더리퍼 배역 중 잭과 폴리는 지정연기 없음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JTBC 예능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

반려동물과 연예인의 조합 성공적인 만남될 수 있을까

'예능 호랑이' 강호동이 고양이 집사로 변신한다.

15일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서울에서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출을 담당한 김노은 PD, 출연진 강호동, 서인국, 심형탁, 이재훈, 김민재, 그룹 아이콘의 김진환, BI가 참석했다.

'마리와 나'는 여행, 출장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주인을 대신해 스타들이 '펫 시터'가 돼 동물 친구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동물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시청자에게 전할 예정이다.

앞서 MBC는 동물 예능 '애니멀즈'를 기획했다가 2%대의 시청률를 맴돌다 처참히 종영한 바 있다.

김노은 PD는 동물을 소재로 하지만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는 "동물을 대할 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안길 것으로 기대한다. 육아 경험이 있는 강호동 씨가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드리겠다"며 "일부러 폭넓은 나이대, 배우와 가수 등 다양한 조합으로 출연진을 섭외했다. 동물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대하는 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는 형님'에 이어 JTBC 프로그램 출연은 두번째이자 동물 프로그램은 처음인 강호동은 "'아는 형님'이 치열한 숙제라면 '마리와 나'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뗐다. "동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출연이 두려웠지만, '전문성 보다 진정성'이라는 제작진의 말에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마리와 나'는 동물과 스타의 24시간을 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 PD는 "강호동 씨가 촬영 초반 '아무것도 안해도 방송분량이 나오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관찰예능이란 게 그렇듯 아무런 설정과 행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분량이 만들어졌다. 동물들의 예측불가능한 모습과 멤버들의 그에 따른 리액션을 고스란히 담았고 성공적인 첫회 녹화였다"고 말했다.

강호동이 '마리와 나'에서 보여줄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지 기대된다. 16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첫 방송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역사의 영웅, 평범한 민초가 되다

〈명량〉

스타인터뷰

영화 '대호' 최민식

'대호'(감독 박훈정)의 무대는 일제강점기다. 조선 마지막 호랑이와 명포수 천만덕의 이야기를 그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호랑이와 포수를 통해 변해가는 시대와 변할 수 없는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포수 천만덕을 연기한 배우 최민식(53)이 그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

최민식이 '명량' 다음 작품으로 '대호'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역사 속 영웅을 연기해야 한다는 강박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가 또 다시 시대극으로 들어가 비운의 시대를 연기해서다. 그래서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다. 한국인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됐다. 그러나 최민식이 '대호'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대호'는 CG에 대한 위험도가 큰 영화에요. '명량' 이후의 흥행이 부담됐다면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게다가 또 사극이잖아요. 흥행을 생각했다면 그냥 여러 배우들과 앙상블로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끌렸어요. 그리고 전력투구한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한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사냥하려는 일본군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대호'는 한국인의 민족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최민식이 '대호'에 끌린 것은 이런 민족성이 아니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그린 영화"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대호'다. 천만덕을 연기하면서 생각한 것 또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지키는 명포수'가 아닌 '시대에 순응한 채 살아가는 평범한 민초'였다.

"촬영하는 동안 영화 '미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옳고 나쁜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호'도 그래요.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죠.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의 뒤틀린 욕망, 그리고 자신의 업을 끊어내려는 인간의 이야기니까요."

최민식은 '대호'에서 CG로 만든 호랑이와 연기하는 낯선 체험을 했다. 실제 촬영 때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주하며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웃음). 그래서 촬영 마치면 '저기 호랑이 물 좀 갖다줘라'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어차피 작품을 하기로 한 이상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배우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최민식은 '대호'가 성공한다면 그 일등공신은 자신이 아닌 바로 CG로 만든 호랑이라고 말한다. "시대를 대변하는 민초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일등공신은 김대호 씨(최민식은 영화 속 호랑이를 '김대호'라고 불렀다)일 겁니다. 괜히 드리는

흥행 부담 대신 메시지 끌려
자연·인간의 예의 그린 영화
CG로 만든 호랑이 일등공신
날이 갈수록 창작욕 더 생겨

말씀이 아니라 김대호 씨가 연기를 못했다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공염불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 '대호'가 묵직한 무게감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최민식의 존재감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17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에 이어 '대호'까지 쉽지 않은 두 편의 영화를 연달아 마쳤다. 하지만 최민식은 "날이 갈수록 창작욕이 더 생긴다"고 말한다. "건드리고 싶은 이야기, 끄집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져요. 더 근사하게 작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두 편의 사극을 연달아 한 만큼 다음 작품에서는 "구두 신고 넥타이 매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최민식은 여전히 배우로서 목마르다. 그의 꿈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한 작업이 먼 훗날 '참 좋은 작업'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만신창이인 봉삼의 앞길은

◆ KBS2 '장사의 신-객주 2015' 오후 10시

봉삼(장혁)은 우피밀매와 소 밀도살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한다. 김보현(김규철)과 길소개(유오성)는 광주무 유수 민영목을 압박해 봉삼을 죽이려 하지만 보부상들의 시위로 뜻대로 할 수 없다. 개똥이(김민정)는 만신창이가 된 봉삼에게 김보현의 수족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설득에 나선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3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5:00 개들의 전쟁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명단공개 (재)		06:1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최고의 사랑 (재)	06: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6:50 위험한 상견례	08:2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9:10 좋은아침	07:30 JTBC NEWS 아침 &	08:30 집밥 백선생 (재)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10:00 SBS 뉴스			09:00 크리미널 마인드	09:40 리전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30 SBS 생활경제	09:00 히든싱어 4 (재)	10:00 현장토크쇼 TAXI (재)	시즌10 (재)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10 청담동 스캔들	10:40 최고의 사랑 (재)	11:00 풍선껌 (재)		11:40 스튜어트 리틀
11:00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1:00 내 딸, 금사월 (재)	11:50 SBS 12뉴스	11:5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2:00 KBS 뉴스 12		12:00 MBC 정오뉴스			12:20 풍선껌 (재)	12: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재)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2:20 능력자들 스페셜	12:45 리멤버-아들의 전쟁 (재)	13:2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4:00 KBS 뉴스타임	13:3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4:35 JTBC 뉴스 현장	13: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13:20 기술자들	13:30 박수건달
14:00 이웃집 찰스 (재)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4:30 내 품에 라비와 친구들	14: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4:55 안녕 우리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00 MBC 뉴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5:00 시사기획 창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6:00 고향이 보인다		15:10 응답하라 1988 (재)	15:30 10,000 B.C.	16:10 돈 비 어프레이드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55 프리파라	16:30 꾸러기 탐구생활				- 어둠속의 속삭임
16:10 다큐 공감 (재)	16:30 이옥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00 바이클론즈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10 응답하라 1988 (재)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7:00 MBC 이브닝 뉴스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내가 살인범이다	
17:20 시사진단	17:00 비타민 (재)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5 생방송 투데이	18:30 국민 행복을 디자인하다 (1회)			18:10 12 몽키즈
19:00 KBS 뉴스 7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최고의 연인	19:20 마녀의 성	19:40 연금복권 520	19:00 집밥 백선생 (재)		
19:30 사람과 사람들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19:55 JTBC 뉴스룸		20:00 그래비티	
20:25 우리 집 꿀단지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영재발굴단		20:20 아바타 셰프		20: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1:00 KBS 뉴스 9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1:30 리얼스토리 눈		21: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1:40 수요미식회	21:50 본 레거시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2:00 리멤버-아들의 전쟁				
22:55 숨터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라디오스타	23:15 한밤의 TV연예	22:50 마리와 나 (1회)			22:00 마담뺑덕
23:00 KBS 뉴스라인	23:10 추적 60분	24:30 MBC 뉴스 24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24:30 신세계	
24:50 동행 (재)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나누면 행복	24:35 나이트라인	24:20 최고의 사랑 (재)	24:50 비밀독서단 (재)		24:20 스타 트렉:더 비기닝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본무의 뒤집기 승부를 기대하며

박 종 국 의 재계이야기

구본무 회장은 1995년 럭키금성그룹회장으로 취임했다. 구회장은 회사명을 럭키금성그룹에서 LG그룹으로 바꾸는 첫 작업을 했다. 국제화에 맞게 기업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LG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삼성이다. 두 그룹은 사이가 좋은 그룹이었다. 故 구인회 엘지그룹창업주와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고향사람이자 사돈지간이다. 동양방송(TBC)을 5대5로 투자해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이 가전사업을 하면서 둘 사이는 틀어지게 됐다. 그때부터 줄곧 엘지와 삼성은 라이벌로 서로 으르렁 거렸다. 엘지가 만들면 바로 삼성이 치고 나오고 삼성이 치고 나가면 LG가 다시 덤벼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구본무 엘지그룹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LG반도체를 포기하게 했다. 구회장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말을 남기고 회사를 매각했다. 전경련에도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반도체를 잃은 LG그룹은 그때부터 삼성과 그룹외형에 차이가 났다.

물론 구회장이 취임하고 그룹매출이 30조원대에서 150조원대로 5배가량 성장했다. 그룹 매출의 3분의2(100조원)를 해외에서 올렸다. 직원수는 10만명에서 22만원으로 늘었다. 시가총액도 10배 늘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애플과 함께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다. 삼성그룹의 매출은 이미 3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물론 엘지도 가전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지만 말이다.

구 회장은 취임 이후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 3대 핵심 사업과 에너지·소재부품을 차세대 먹을거리로 선택했다.

LG그룹은 삼성과 다르게 인수·합병 보다는 합작을 선호해왔다.구인회 회장이 사업을 할때 사돈인 진주 갑부 허만정(LG그룹 공동창업자이자 GS그룹의 설립자)의 재무적 투자로 LG를 만들었다. 최근에 LG와 GS그룹으로 헤어졌지만 두 그룹은 아직도 끈끈한 우정을 지키고 있다. 또 구회장은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LG디스플레이를 세웠다. 엘시디(LCD) 패널과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기업이다.

엘지화학은 2차전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rechargeable battery)를 만들어 현대차, 미국의 지엠(GM), 포드 등 세계적 자동차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세계1위 기업이 됐다. 엘지텔레콤, 엘지데이콤, 엘지파워콤 을 합쳐 엘지유플러스로 바꿨다. 시장점유율을 10%대에서 20%로 올렸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빅딜로 시작된 재계 간 그룹빅딜은 막을 내렸다. 한때 삼성그룹의 가장 막강한 경쟁회사였던 엘지그룹은 조용했다. M&A(인수·합병)은 LG의 스타일이 아니고 기업 전통도 아니다. 선대 때부터 내려온 동업자를 존중하고 한번 내 뱉은 말은 철저하게 지키는 집안 전통이 있어서다.

처음으로 엘지그룹은 대우건설인수를 추진했지만 형제기업에 가까운 GS그룹이 참여하자 그만 뒀다. 얼마 전 LG화학이 동부팜한농과 LG하우시스가 독일의 소재회사인 '호르슈크'인수를 검토한 것이 전부다. 두 회사 인수금액을 합하면 1조원이 된다. 물론 자잘한 기업을 계열사에서 사들인 건 제외하고 말이다.

다시 한번 LG그룹의 삼성그룹을 향한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세계자동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은 스마트폰에서 시작해 스마트TV로 옮겨갔다. 이제는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스마트카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기능은 기본이고 거기에 친환경이 더해진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다. 배터리와 그와 관련된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GM은 2017년 시판을 목표로 하는 주행거리 320km의 전기차 볼트(BOLT)를 발표했다. 이 차에는 LG가 만든 구동모터와 배터리 등 11가지 핵심부품이 들어간다.

삼성SDI는 2차 전지 분야 세계 제1기업이고 바로 그 뒤를 LG화학이 무서운 기세로 쫓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독일과 미국을 오가며 자동차 회사 오너들을 만나고 있다. 삼성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관련업계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라이벌 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디가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주행한다는 콘셉트카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 파트너로 삼성SDI와 LG화학을 선택했다.LG화학은 미국 공장에 이어 중국 남경 공장에 연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공장을 준공해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한다.삼성SDI는 지난 5월 세계적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 사업을 인수해 SDIBS(삼성SDI 배터리시스템스)를 세웠다.차세대 먹거리로 성장중인 전기차 배터리는 10년 내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엔 LG화학, 삼성SDI, 일본, 파나소닉이 있다.

또 관련 자동차 사업의 핵심 기술을 누가 앞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기도 하다. 삼성과 애플의 잰걸음 뒤에는 LG그룹이 무섭게 뒤를 쫓고 있다.

삼성은 애플의 스마트폰을 뒤따라 성공했고 다시 애플은 전기차와 스마트카에서 삼성과 싸움을 준비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업은 LG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은 겉치레보다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언론사 행사에 나올 때도 다른 재벌회장과 달리 비서한명이 전부다. 대한민국 2~3위 그룹 총수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탈하다. 그가 조용히 준비한 삼성과의 라이벌전이 조만간 세계무대에서 펼쳐 질것이다.

옛날처럼 두 그룹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져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객원논설위원

외화 시사회의 보안검색, 필요한가

기자 수첩

장 병 호 〈라이프&유통부〉

영화 담당 기자로서 고민거리 하나가 있다. 언론시사회를 통해 먼저 접한 영화를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리뷰를 쓸 때도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을 위해 영화의 내용을 어디까지 언급할지를 항상 생각한다. 요즘처럼 '스포일러'에 민감한 분위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제작사와 배급사 측에서도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봉 전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한다. 많은 관객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다. 언론시사회에서 스포일러를 숨겨달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외화 시사회에서는 때때로 영화의 사전 유출을 예방하고자 보안 검색을 진행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 언제든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볼 법한 검색대가 극장에 설치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물론 공항처럼 복잡하게 검색을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일 뿐이다.

그러나 지난 9일 CGV 여의도에서 열렸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푸티지 상영회는 다소 과도한 보안 검색으로 취재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안전요원들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물론 직접 손을 넣어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했다. 경찰도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가방을 외부에서만 관찰하거나 양해를 구해 열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안전요원들의 행동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월권행위였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10년 만에 제작된 '스타워즈' 시리즈 신작으로 전 세계 팬의 관심이 높다. 이런 팬들을 위해 개봉 전까지도 구체적인 시놉시스가 비밀로 감춰져 있을 정도다. 배급사인 디즈니 측도 보안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더 철저한 보안 검색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소지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작 9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도 말이다.

디즈니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16일 진행하는 언론시사회에서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보안 검색을 한다고 한다. 그래도 시사회에서의 보안 검색이 정말로 필요한지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 개봉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solanin@metroseoul.co.kr

'올해의 영웅 소방관' 배기만 소방경 선정

15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2015년 영웅 소방관' 시상식에서 충남소방본부 119 광역기동단 소속 배기만 소방경(49·사진)이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

최고 영웅소방관은 전국 3만여명의 소방관 중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활동이 뛰어난 한 명의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배 소방경은 이어 "모든 영광을 재난현장에서 함께 뛰어준 선·후배 소방관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서 소방관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소방관에 입문한 배 소방경은 23년간 4800여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 920명의 인명을 구조한 베테랑이다.

/홍성=연합뉴스

社說

주택거래는 위축되지 않게 해야

정부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와진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몇가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기 쉽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뒤따라 금리를 올린다면 주택거래가 얼어붙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면 전세값이나 월세가 대신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치면 수도권 전세난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거래 자체는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전세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 생활자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111조원 가운데 생계자금이 13조5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동기보다 4조5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별히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운 결혼자금을 비롯한 긴급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대출이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도 확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곪아 터지는 수가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다소 낮고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더욱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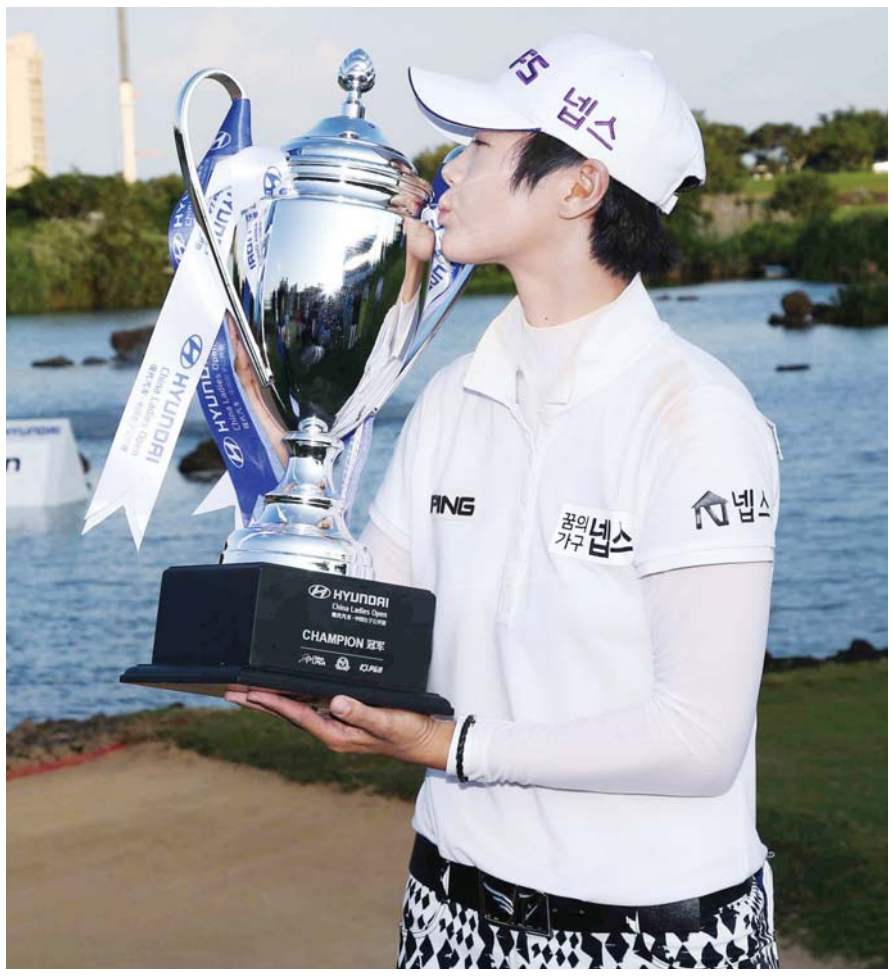
인사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유재수
◆한국거래소 ▲ 경영지원본부장 안상환
◆우리은행 ◇부장 ▲회계부 김상도 ◇부장대우 ▲채널지원부 신범수 ▲국제부 정재철 ▲스마트금융사업본부 석균철 ▲중기업심사부 이대열 ▲중기업심사부 강동원 ▲중기업심사부 하종표 ▲중기업심사부 허재민 ▲대기업심사부 강현호 ▲검사실 오갑록 ▲검사실 고정숙 ▲개인고객본부 송유수 ▲WM전략부 홍형기 ▲영업지원그룹 이해광 ▲리스크총괄부 김지일 ▲인사부 유정근 ▲직원만족센터 박정호 ▲총무부 이상빈 ▲여신업무센터 김석회 ▲수신업무센터 김동원 ▲수신업무센터 윤성현 ▲여신관리부 이흥섭 ▲기업개선부 강성숙 ▲재무기획부 신재철 ▲홍보실 노홍길 ▲준법지원부 방원종 ▲준법지원부 김민수 ▲본점영업부 김용빈 ▲국제부 최창호 ▲국제부 이상민 ▲인사부 이지환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박영하 ▲삼성 조한래 ▲트윈타워 곽훈석 ▲강남 정해원 ▲중앙 송윤홍 ▲종로 송정준 ▲종로 이정미 ▲남대문 이명계 ▲미래 권진완 ▲미래 전덕수 ▲미래 전정묵 ▲미래 권영찬 ▲미래 김정현 ▲미래 김성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서초 김병규 ▲테헤란로 이재곤 ▲남동공단 김동현 ▲분당중앙 서양우 ▲판교테크노밸리 이정오 ▲울산중앙 홍칠식 ◇금융센터 개인지점장▲남역삼동 이승철 ▲서울시청 박정호 ▲서초 양진모 ▲신반포 최병창 ▲한화 박민수 ▲부평 문연천 ▲성남 이성국 ▲안양 김융주 ◇영업본부 영업지점장 ▲부천인천북부 나대석 ▲경기중부 이승호 ▲경기동부 어 옥 ▲경기남부 곽정호 ▲경기북부 최경섭 ▲부산중부 최민찬 ▲대구경북2 류태구 ▲호남 현병수 ◇지점장 ▲강동구청 김회종 ▲개롱역 이달규 ▲개포역 이향구 ▲구로구청 최갑철 ▲구로중앙 손혜영 ▲구일 김석태 ▲남대문시장 신선희 ▲동대문구청 방석진 ▲봉천동 이재만 ▲삼성엔지니어링 오우섭 ▲서강대 김만호 ▲서빙고동 김계환 ▲서울글로벌투자지원센터 전현기 ▲서울대학교 박세권 ▲성수IT 박성봉 ▲영등포구청 최병두 ▲월계역 박석준 ▲인사동 기일석 ▲잠실진주 백현학 ▲종로3가 이정은 ▲중계2동 유창우 ▲청계 이정석 ▲하계동 김진왕 ▲한남빌리지 김정우 ▲간석역 지진학 ▲갈산동 전정현 ▲검단산단 신은호 ▲검단 정종원 ▲산곡동 황순식 ▲송도스마트밸리 김형조 ▲인천논현역 성호윤 ▲주안공단 이재완 ▲청라 박미경 ▲고강동 오태항 ▲광명7동 한주수 ▲김포통진 이성혁 ▲단국대학교 김영만 ▲동백 원용태 ▲동탄 김희섭 ▲모란역 백종운 ▲분당테크노파크 최상민 ▲수리동 박성복 ▲수지신정 선창완 ▲호평 조광구 ▲대덕 김형태 ▲대전북 송경빈 ▲용문역 최은수 ▲유성 박찬범 ▲철도타워 최재용 ▲당진 송일섭 ▲대천 이금구 ▲서산 이상복 ▲세종종촌동 박전수 ▲아산배방 김재구 ▲조치원 전중기 ▲홍성 조규태 ▲산남동 김근식 ▲청주산단 이준용 ▲삼척 이근우 ▲원주단구 지재덕 ▲구포 김진성 ▲메트로시티 이춘용 ▲센터파크 정말모 ▲양정동 김정탁 ▲영도중앙 황도영 ▲토곡 정옥태 ▲해운대중앙 박상규 ▲구영 이상후 ▲무거동 임학기 ▲울산북 김성춘 ▲웅상 이진섭 ▲통영 예철수 ▲팔용동 우규원 ▲노원동 이상욱 ▲다사 최정호 ▲유통단지 최은종 ▲평리동 안차호 ▲왜관공단 황윤석 ▲포항남 김광숙 ▲포항양덕 서상윤 ▲포항중앙 문형도 ▲광주수완 임숙자 ▲진월동 이양수 ▲평동산단 정재석 ▲대불공단 정기성 ▲정읍 하동석
◆국제전시컨벤션센터(KINTEX) ▲관리본부장에 손성오(57)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기획본부장 겸직) 팽우선 ▲건설본부장 신재상 ▲도로교통본부장 박상욱 ▲사업본부장 최광호
◆나이스(NICE)그룹 (대표이사 내정) ▲NICE정보통신 홍우선 ▲KIS정보통신 이윤희 ▲NICE디앤비 노영훈 ▲NICE신용정보 김준연 ▲NICE데이터 이호제 ▲NICE CMS 성기동 (사장 승진) ▲한국전자금융 구자성 (부사장 승진) ▲NICE정보통신 황윤경 박세진 ▲NICE F&I 정용선 (전무 승진) ▲NICE평가정보 오기섭 ▲KIS정보통신 강영길 ▲NICE디앤비 강용구 ▲NICE F&I 김종훈 ▲서울전자통신 오현석 ◇상무 승진 ▲NICE평가정보 오규근 박현섭 ▲NICE신용평가 노태성 ▲NICE P&I 한영하 ▲지니틱스 임종석 (상무보 승진) ▲NICE홀딩스 진동현 ▲NICE평가정보 김종윤 이세욱 이호석 ▲NICE신용평가 박명수 ▲한국전자금융 하철수 박정규 피경원 ▲NICE정보통신 김명열 김춘수 ▲KIS정보통신 염성필 ▲NICE신용정보 박영근 이진욱 권승인 ▲NICE디앤비 조양제 김태산 김태훈 ▲NICE P&I 김만기 ▲서울전자통신 김택수 (부사장 전보) ▲NICE신용평가 남욱 ▲오케이포스 홍춘기 ◇ 상무 전보 ▲NICE정보통신 조대민 ▲KIS정보통신 윤태운 (상무보 전보) ▲한국전자금융 임훈택 ▲KIS정보통신 강명구
◆교보생명 (경영임원(상무) 신규 선임) ▲ 이상기 ▲ 이종진 ▲ 최화정 ▲ 조대규 ▲ 민욱 (임원보 선발) ▲ 최백규 ▲ 조규식 ▲ 이철 ▲ 이종태 ▲ 이재명 (본부장·실장 이동)▲ 강남FP 유영진 ▲ 호남FP 권현섭 ▲ AM 박영우 ▲ 보험서비스지원 윤민학 (임원 이동)▲ 전략채널 황미영 ▲ 고객보호 김기영 ▲ 정보보안 김기환
◆한국전력 (본사 처(실)장 및 1차사업소장 전보) ▲ 홍보실장 장동원 ▲ 전력시장처장 이병식 ▲ 경영개선처장 조철 ▲ 재무처장 김종수 ▲ 인사처장 김응태 ▲ 노무처장 진영상 ▲ 보안관리처장 김헌태 ▲ 자재처장 권태호 ▲자산관리처장 김성윤 ▲ 영업처장 권기보 ▲ 배전운영처장 권오득 ▲ 상생협력처장 허용호 ▲ 민원대책처장 김명기 ▲ 안전관리처장 김용덕 ▲ 기술기획처장 김홍균 ▲ 품질경영처장 정금영 ▲ 신송전사업처장 박재호 ▲ 해외사업운영처장 강헌규 ▲ 해외발전기술처장 이조형 ▲ 해외원전금융처장 김갑순 ▲ 서울지역본부장 이호평 ▲ 남서울지역본부장 김회천 ▲ 인천지역본부장 김홍래 ▲ 경기지역본부장 박형덕 ▲ 강원지역본부장 송관식 ▲ 충북지역본부장 박두재 ▲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익수 ▲ 전북지역본부장 김락현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현욱 ▲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하희봉 ▲ 경남지역본부장 고원근 ▲ 경제경영연구원장 정은호 ▲ 업무지원처장 최상철 ▲ 정보기술처장 이강세 ▲ 설비진단처장 노일래 ▲ 전력기반센터장 안광석 ▲ 경인건설처장 문봉수 ▲ 중부건설처장 양현식 ▲ 남부건설처장 박재호 ▲ 필리핀일리한현지법인장 고재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장타여왕’ 박성현, 美 진출 티샷

내년 3월 LPGA 기아클래식 필두 5개 메이저대회 모두 출전하기로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섬에 위치한 미션힐스 하이커우 GC에서 열린 현대차 중국 여자오픈 2015 FR 우승자 박성현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장타여왕’ 박성현(22·넵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지난해 상금랭킹 34위에 평균타수 55위의 평범한 선수였던 박성현은 올해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을 비롯해 3번이나 우승하고 상금랭킹 2위에 평균타수 8위에 올랐다. ‘장타여왕’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전인지(21·넵스)와 함께 가장 많은 갤러리를 몰고 다니는 흥행 스타로 거듭났다.

박성현은 전인지가 떠나는 내년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할 태세다. 지난 주말 열린 2016시즌 개막전인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김효주(20·롯데)와 전인지의 추격을 뿌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또한 박성현은 내년 시즌을 통해 LPGA 투어 진출을 위한 첫 걸음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현은 2016시즌 LPGA 투어 대회에서 7차례 가량 출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 2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LPGA투어 기아클래식에 출전한다. 이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리는 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에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가 열리기 전 LPGA투어 대회 출전으로 2016년 투어 일정을 시작하는 셈이다.

박성현은 국내 투어를 뛰면서 US여자오픈, KPMG 여자 PGA챔피언십, 브리티시여자오픈, 그리고 에비앙챔피언십 등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프로골프투어 2015년 시즌 상금랭킹 2위 자격으로 5대 메이저대회에 모두 출전할 수 있다.

올해 상금왕을 놓고 경쟁했던 전인지와는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LPGA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이보미(27)와도 맞붙게 된다.

박성현의 내년 출전 스케줄에는 내년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KEB-하나은행챔피언십도 들어 있다. 2014년 김효주와 백규정(20·CJ오쇼핑), 그리고 올해 전인지가 밟은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퀄리파잉스쿨을 통한 LPGA 투어 진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성현은 LPGA 투어 진출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목표는 국내 투어 1인자다. 박성현은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이 끝난 뒤 “잠깐이지만 상금랭킹 1위 자리를 느낄 수 있어 기분 좋다”며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박성현의 당면 목표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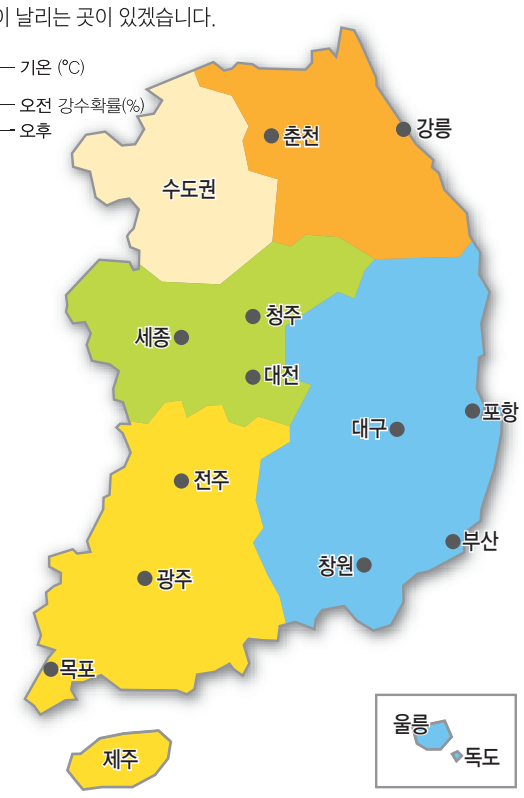
해뜸/07:40 | 해짐/17:15

12월 16일 수요일 (음력 11월 6일)

우중충한 수능날 아침… 제주도엔 밤부터 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새벽에 서해안에서 눈이 시작되어 낮에는 충청이남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남부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4/3	10	10
강릉	1/6	10	10
세종	0/2	30	70
대전	1/3	60	70
청주	1/3	70	60
광주	2/4	70	90
전주	1/3	70	80
목포	2/5	20	80
제주	6/7	30	60
대구	2/5	60	60
창원	3/8	10	10
포항	4/6	10	10
부산	4/9	10	10
울릉	3/4	1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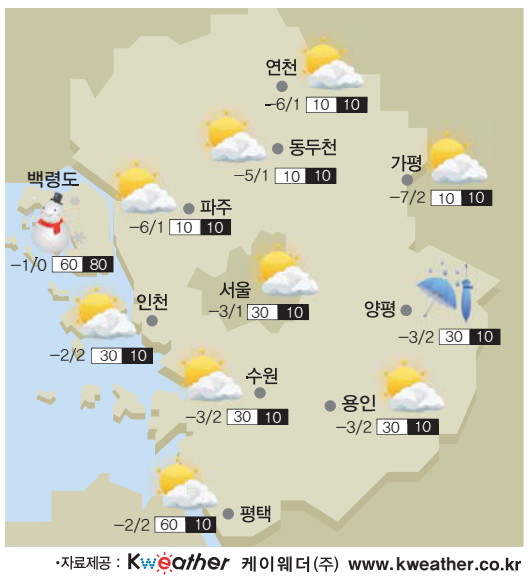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 ~ -3℃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1:28/23:57	04:56/17:38
인천	07:43/20:06	01:55/13:59
울산	10:16/23:20	04:09/16:41
군산	05:55/18:27	00:52/12:49
목포	05:05/17:43	10:17/22: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女 핸드볼대표팀, 러에 덜미… 세계선수권 8강 좌절

16강전서 25-30으로 패배 24개국 중 14위로 마무리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제22회 세계선수권대회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14일(현지시간) 덴마크 콜링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16강전에서 25-30으로 졌다.

러시아는 2005년과 2007년, 2009년에 걸쳐 이 대회 3연속 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한국은 이은비(부산시설공단)가 혼자 7골을 터뜨리며 분전했으나 5골 차로 패배했다.

전반을 13-16으로 뒤진 한국은 후반 초반 이은비의 속공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을 노렸다. 그러나 후반 중반 이후 러시아에 연속 실점하며 한때 10골 차까지 끌려갔다.

24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1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011년과 2013년 대회에 이어 최근 3개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머물렀다.

임영철 한국 대표팀 감독은 “우리가 준비한 것은 거의 다 소화했지만 상대 신체조건이 워낙 좋아 힘에서 밀렸다”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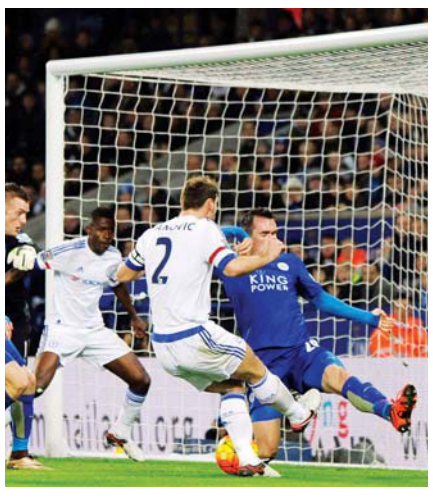
또한 “러시아 오버스텝이 거의 지적되지 않은 반면 우리 쪽에는 공격자 반칙 휘슬이 번번이 불렸다”고 지적했다. 임 감독은 “2분간 퇴장 역시 러시아는 두 차례에 불과했으나 우리는 7번이나 불리는 바람에 14분간 선수 한 명을 빼고 경기를 치러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8강은 네덜란드-프랑스, 폴란드-러시아, 노르웨이-몬테네그로, 덴마크-루마니아의 ‘유럽 잔치’로 열리게 됐다.

/장병호 기자

레스터시티, 첼시 꺾고 EPL 단독 선두

제이미 바디 시즌 15골 폭발


14일(현지시간)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첼시의 경기.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2번·첼시)의 공격 시도를 레스터의 골키퍼가 막아내고 있다. 이날 레스터시티는 첼시에 2-1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레스터시티가 제이미 바디의 15호골에 힘입어 첼시를 꺾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섰다.

레스터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레스터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바디의 선제골을 앞세워 첼시를 2-1로 꺾었다.

레스터는 10승5무1패(승점 35)를 기록해 아스널(승점 33)에게 내준 선두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았다. 첼시는 4승3무9패(승점 15)로 리그 16위에 머물렀다.

첼시와 경기 초반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레스터는 전반 34분 리야드 마레즈의 패스를 받은 바디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바디는 지난 5일 스완지시티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12경기 연속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날 다시 한 골을 추가하며 시즌 15골을 기록했다.

레스터는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이어 후반 3분 마레즈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며 격차를 벌였다.

레스터는 반격에 나선 첼시 로익 레미에 후반 32분 한 골을 내줬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며 승리를 가져갔다.

/장병호 기자

“다저스 ‘류현진 복귀’ 낙관 금물”

LA타임스, 선발 영입 필요성 지적 주치의 “정상 복귀 가능성 80%”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내년 투수 류현진(28)의 복귀를 낙관하지 말고 새로운 선발투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LA 타임스의 스티브 딜벡 기자는 14일(현지시간) ‘다저스, 2016년 류현진 복귀에 희망을 갖되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딜벡 기자는 “투수 로테이션 문제가 심각한 다저스 입장에서는 류현진의 복귀가 절박하다. 현 투수진으로 클레이튼 커쇼, 알렉스 우드, 브렛 앤더슨만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영입한 이와쿠마 히사시가 정상적으로 합류한다고 해도 선발 한 자리가 빈다”며 “내부에서 한 자리를 채울 이상적인 후보는 좌완 류현진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2014년까지 2년 동안 28승 15패 평균자책점 3.17, 이닝당 출루허용 1.20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2일 왼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근육이나 관절막 등 주변 조직이 관절과 잘 붙어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관절 와순이 찢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회전근에는 문제가 없다.

다저스 주치의이자 류현진의 수술을 집도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는 “최근 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어깨 관절과 회전근을 동시에 수술한 선수 중 57%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관절 와순만 손상되면 80%가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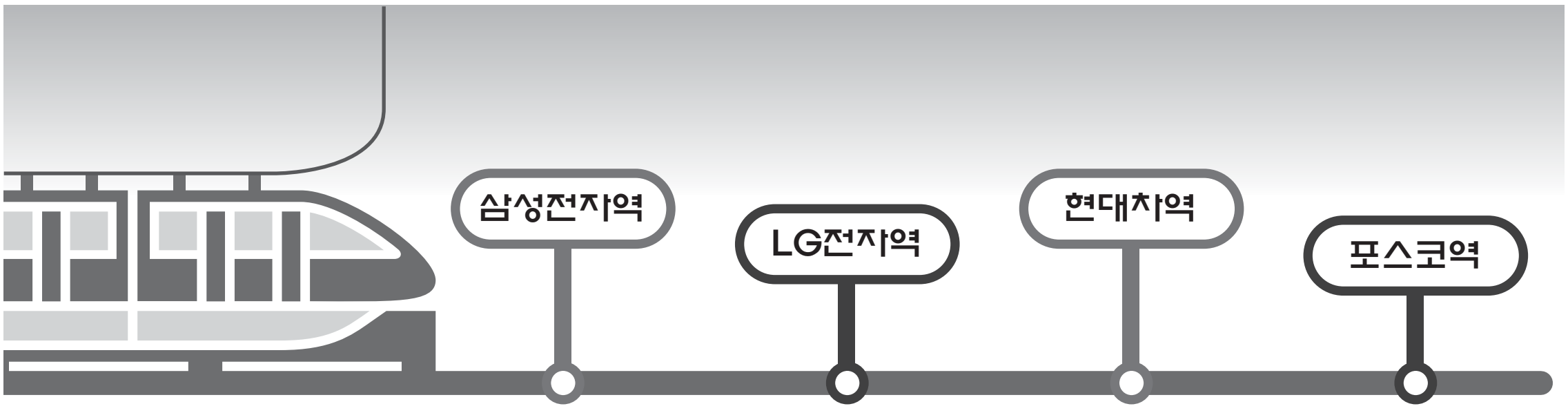
딜벡 기자는 엘라트라체 박사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류현진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80%”라고 했다.

하지만 류현진이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할 확률 20%에도 주목하며 “선발진에 포함할 투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저스는 류현진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그래서 선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류현진



삼성전자역·LG전자역·포스코역이 생긴다?

서울지하철, 역 이름 팝니다

10개역 선정 시범운영
경쟁입찰로 3년간 유지

서울시 지하철 역 이름이 시장에 나온다. 내년부터 서울시 지하철 역 이름을 살 수 있어서다. 판배방식은 경쟁입찰이다. 금액을 많이 써 내면 역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 역명에 병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 1~4호선과 5~8호선에서 각각 5개씩 10개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병기 역명은 철도의 역 이름에 부가적으로 붙는 역명을 지칭하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붙여 써야 하는 역명을 가리킨다. 하지만 사실 부기역명이나 병기역명이나 보조적으로 역의 이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를 굳이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역명에서는 드문 사례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체 역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성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기관은 배제할 예정이다.

공공성 판단이나 사용료 기준 등 세부운영 지침은 서울시와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역에서 500m 이내 있는 기관과 기업이 대상이지만 마땅한 곳이 없으면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1개역 1개 병기, 1회 3년 계약이 원칙이다. 출입구역 명판과 승강장역 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 반영한다.

입찰하는 기관이 많으면 그 중 최고가를 써 낸 곳을 선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대상 역사를 선정하고 각 역사에 원가선정 용역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된 원가를 기준으로 3월 입찰을 진행한다. 그리고 4월부터는 지하철 역명을 병기한다.

서울시는 기관과 단체 등 역명 개정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지하철 운영 기관의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서울시는 역명 병기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기관과 단체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유상판매로 돌릴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병기명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307개 역 가운데 61개역(19.9%)에 대학과 구청 이름 등이 병기돼있다.

시는 지난 2013년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에서 역명을 유상판매 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 코레일과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등 다른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모두 병기 역명을 유상 판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10개 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후 확대 진행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일한 역명 개정 민원을 두 차례까지만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역명 제·개정 절차를 개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학이름 딴 지하철역, 오히려 혼란 부른다?

서울대입구 등 일부 역 '낚시 논란'
학교까지 2㎞… 버스 환승도 예사

현재 대학의 이름을 딴 역명은 서울지하철 1~9호선에만 2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교 이름을 딴 역명이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1호선 '외대앞역' 등 학교명에 입구나 앞이 붙은 역명부터 2호선 '한양대역' 6호선 '고려대역' 등 대학명 자체가 역이름이 된 곳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이대역'은 출구부터 대학교 입구까지 도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표적인 '낚시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입구역의 경우 2㎞가 넘어 버스로 추가환승

②서울대입구역 서울대 정문

까지 해야한다.

국토부는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해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은 홍보 효과를 위해 역명 따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하철 역명 표기 대신 부역명 표기 시도로 우회하는 대학들도 많다. 부역명은 기존 역명에 역세권 기관이나 기업 이름을 함께 적어 넣는 것을 말한다. 역명 옆 괄호 안에 병기된 이름이 부역명이다. 대학들은 적지 않은 부역명 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부역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교 관계자는 "굳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기만 해도 학교 이름을 반복해 듣게 돼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며 "자연스럽게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서울시는 내녀부터 1~4호선과 5~8호선에서 각각 5개씩 10개역을 선정해 역명에 병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할 거라고 밝혔다. 이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창출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신원선 기자

서울메트로 등에 청년일자리 9800개 조성

서울 8개투자·출연기관
5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8개 투자·출연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곳에서 5년간 창출되는 일자리 9800개에 청년을 채용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박승흡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19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모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투자·출연기관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490명, 정년퇴직으로 520명 등 1010명을 신규채용할 여지가 있다. 이 중 1006명을 청년으로 채운다. 이는 법적 청년의무고용인원(정원의 3%)인 660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0년까지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빈 자리에 46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또 지하철 보안관과 안내질서 도우미, 시니어보안관, 인턴기관사 등 신규사업으로 5년간 5191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모두 9800여명을 채용한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임원들은 연봉의 5%를 반납,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비는 사무공간과 임대매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저가에 임대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상실감을 보상해주기 위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1인당 연 20만~9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

청소용역과 시설·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은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승강장 안전문 안전관리 업무 등은 지하철공사 통합시 직영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협약은 고용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정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64호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라이프]
'명량'
최민식,
평범한 민초로
16

'유통 빅4 격전지' 천안 쌍용

지하철을 읽으면 부동산이 보인다

③ 천안 쌍용역

단지 1㎞내 마트·백화점 4곳 몰려
국철라인에 KTX 지나가 관심집중
인근에 천안고 등 초중고 7개교
건강지킬 순천향대병원도 가까워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층에게 입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근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있다면 금상첨화.

올해는 정부와 민간 주도로 실시된 한국판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와 K세일 데이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인근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K세일데이'에 참여한 집계가 가능한 주요 25개 참여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5313억원(8.4%) 증가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1778억원(7.8%),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의 매출은 475억원(2.8%) 늘었다. 이에 백화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단지에 대한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마트 전경.

부동산정보업체 함스피알 함경남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위주로 재편되면서 아파트 구입시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은 주변 생활인프라와 입지"라며 "단지 주변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는 찾는 수요자가 많아 매매거래가 활발하고 탄탄한 시세까지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이 1월 천안시 쌍용동 445번지에 공급하는 '천안 쌍용역 코오롱하늘채'는 교육, 쇼핑, 문화시설이 1㎞ 이내에 근접한 천안의 중심생활특구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6~26층 4개동 전용면적 59㎡~136㎡ 454가구로 구성된다. 주택 유형별로 ▲전용 59㎡ 274가구 ▲전용 70㎡ 90가구 ▲전용 84㎡ 85가구 ▲전용 91㎡ 3가구 ▲전용 111㎡ 1가구 ▲전용 136㎡ 1가구다.

단지 1㎞ 이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이 있어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판 블랙블라이데이를 연례 행사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만큼 단지 인근에 입주하게 되면 행사 당일 긴 줄을 서고도 품절돼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천안 쌍용역 코오롱하늘채는 서울과 아산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쌍용(나사렛대)역 역세권이기도 하다. 또한 천안의 시내 주요부를 관통하는 충무로와 불당대로, 서부대로가 가까우며 남부대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IC와 연결되는 1번국도 이용이 편리하다. KTX천안아산역까지는 차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뇌졸중 전문 치료병원인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있다. 순천향대병원은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뇌졸중전문치료시스템을 가동하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평균 점수 9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는 수곡초와 쌍정초, 월봉초, 신방중, 쌍용중, 천안고, 쌍용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다. 또한 월봉산, 일봉산, 봉서산 등 자연환경과 전체 대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조경녹지로 채운 공원도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5-16에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